

두 기생의 순절<sup>殉節</sup> 이야기

# 이기대



두 기생의  
순절<sup>殉節</sup> 이야기

곽태욱  
지음

# 이기대

## 이기대 二妓臺

조선 25대 철종 원년(1850) 경상좌수사를 지낸 승정원 승지 이행하는 『내영지(萊營誌)』를 편찬하며 “좌수영 남쪽 15리 위에 두 기생의 큰 무덤이 있어서 ‘이기대’라 부른다 한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부산남구문화원



● 여는 말 \_ 들머리에 서서 10

## 1장 가깝고도 낯선 ‘이기대(二妓臺)’

1. 이기대(二妓臺)와 그 유래	15
1) 이기대는 어떤 곳인가? _ 15	
2) 이기대 명칭 유래 _ 17	
2. 이기대(二妓臺)에 관한 세 가지 설의 실체	19
1) 기생설(妓生說) _ 19	
2) 의기대설(義妓臺說) _ 26	
3) 이기총설(二妓塚說) _ 30	
3. 이기대 두 기생은 ‘프리랜서’였을까	48
4. 문학작품 속의 ‘이기대(二妓臺)’	51
1) 가사(歌詞)에서 _ 51	
2) 시(詩)에서 _ 52	
3) 수필(隨筆)에서 _ 53	
4) 소설(小說)에서 _ 58	
5) 연극(演劇)에서 _ 58	
6) 시극(詩劇)에서 _ 59	
5. 이기총(二妓塚)을 역사에 등장시킨 『내영지(萊營誌)』	59

## 2장 대환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서막

- |                               |    |
|-------------------------------|----|
| 1. 평온한 옹호마을의 단상 하나            | 75 |
| 2. 『국역 내영지』의 ‘풍속조(風俗條)’와 옹호마을 | 76 |
| 3. 왜군 대함대 출현과 피난의 끝           | 80 |
| 1) 왜군 대함대가 바다를 메웠다 _ 80       |    |
| 2) 이른 아침 서녘 하늘에 화염이 솟았다 _ 81  |    |
| 3) 피난길에 오르다 _ 82              |    |
| 4) 임진년 사월 열나흘 밤 _ 83          |    |
| 5) 다시 피난길에 오르다 _ 85           |    |

## 3장 이기대(二妓臺), 전설의 시작

- |                                     |     |
|-------------------------------------|-----|
| 1. 절의(節義)를 택한 두 기생                  | 89  |
| 2. 매하자상(妹下姉上)의 배치 ‘이기총(二妓塚)’        | 94  |
| 3. 왜군 제1번대장(番隊長)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분노 | 97  |
| 4. 왜란 7년의 끝                         | 99  |
| 5. ‘이기대(二妓臺)’라 부르기 시작했다             | 100 |

## 4장 해안 절경에 묻혀 있는 ‘이기대(二妓臺)’

1. 잡초와 넝쿨에 싸인 이기총(二妓塚) 105
2. 이기총 묘역(墓域)은 ‘의부지(義婦地)’였다 111
3. 순절한 두 기생과 소설의 주인공 ‘성춘향(成春香)’ 117

## 5장 새로 쓰는 ‘이기대(二妓臺)’

1. 두 기생의 무덤 추정 ‘이기총’ 발견 123
  2.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내는 고언(告言) 126
  3. 역사 현장에서 시작된 ‘이기대 유래’ 130
- 달는 말 \_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마치며 141



여는 말

들머리에 서서



## 들머리에 서서

천혜의 기암 절경을 병풍처럼 펼친 이기대(二妓臺)는 임진왜란 때 왜장들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의 순절을 품고 있는 역사 현장이다.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유일한 문헌은 경상좌수사를 지낸 이형하가 편찬한 『내영지(萊營誌)』(1850년)인데, 일제 강점기에 약탈당해 일본으로 반출된 수천 종의 문화재 중 하나였던 그 문헌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001년이였다.

그 이후 2014년 우리 고장의 향토사인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가 발간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임진왜란 이후 400여 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해진 구전(口傳)을 꾸준히 채록·수집해온 향토사 연구자들의 노고를 통한 여러 방계의 자료와, 2011년 9월 두 기생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이기총(二妓塚)’ 발견, 이기대의 유래를 밝힌 『내영지(萊營誌)』의 기사 등을 근거로 마침내 이기대의 유래가 ‘역사 현장’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참고한 이 글은 임진왜란 이후 용호동, 대연

동 등지에 구전되던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잘 정리한 것으로 평가받는 소설작품에서 일부 내용을 옮겼고, 여기에 우리 고장의 향토사와 여러 문중의 족보, 토착민 후손의 증언 등을 구전에 비정(批正)하여 인과관계에 따른 오류를 줄였다. 이와 함께 『내영지(萊營誌)』의 역사적 가치와 그 내용도 전반적으로 소개하였다.

한편 문학적 구성으로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도 소재목, 소괄호로 갈래지어 내용을 정렬한 것은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학술서나 연구보고서가 아님을 미리 일러둔다. 다만 역사에 접근하거나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참조·발췌·인용하여 각주를 달았는데, 그 내용이 미진하거나 혹 누락, 혹 사실과 다른 부분은 독자들께서 수정·보완해 주시면 하는 바람을 남긴다.

끝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이기대 두 기생의 의로운 애국 충절을 오늘에 선양하기 위하여 부산남구문화원 김철 원장과 한국문화원연합회 수석부회장 겸 부산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이신 성재영 회장을 중심으로 부산남구문화원 이사들이 <이기대 보존회>를 만들어 의미 있는 발걸음을 뗐다. 분명 후세인들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우리 고장 남구의 향토사를 새롭게 바라보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2021년 10월

내 고장 향토사에 한 생각 없으며

곽 태 욱



# 1

## 가깝고도 낯선 ‘이기대(二妓臺)’







# 1장 가깝고도 낯선 ‘이기대(二妓臺)’

## 1. 이기대(二妓臺)와 그 유래



이기대 경관 : 이기대공원로 68(용호동 산 25번지)  
사진②(좌), 사진③(우)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 1) 이기대는 어떤 곳인가?

이기대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에 소재한 장자산(해발 225.3m)의 동편 자락이 바다와 접한 일대 지역을 일컫는다. 공식 명칭은 ‘이기대 도시자연공원’이다. 부산 남구에서는 오륙도와 함께 ‘부산

국가지질공원(釜山國家地質公園)'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기대에는 깨끗한 하천과 습지에 산다는 반딧불이를 비롯하여 야생화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질학적·생태학적으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기대 일대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과 명소는 조선 시대 봉수대를 복원한 황령산을 비롯하여 금련산과 장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동쪽 수평선을 바라보면 광안대교와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Nurimaru APEC House), 달맞이 고개 등이 한눈에 보인다.

이기대는 동해와 남해가 갈리는 해파랑길과 남파랑길의 출발점이며, 갈맷길 700리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날씨가 맑고 파도가 잔잔한 날에는 대마도(對馬島)가 선명하게 보인다.

이기대에서 오륙도로 이어지는 긴 해안산책로를 걸으면 임진왜란 때 수영성 주둔 왜군 지휘관들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의 천추에 서린 한이 해조음(海潮音)에 실려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2) 이기대 명칭 유래

이기대 명칭 유래는 2014년 부산 남구청에서 발간한 향토사<sup>1)</sup>에서 소개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이 중 이기대 유래와 관련한 ‘세 가지 설(說)’<sup>2)</sup>은 해당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옮겼다. 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설’은 이어지는 ‘1장 2. 이기대에 관한 세 가지 설의 실체’에 맞추기 위하여 현재 순서대로 앞뒤를 바꾸어 배치하였고, 내용이 긴 것은 뒷장에서 상세하게 설명되므로 생략하였다. 향토사에 소개된 ‘세 가지 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생설(妓生說)이다. 이기대의 3가지 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전해진 설인데, 경상좌수사가 두 명의 기생과 함께 이곳에서 놀았던 곳이라는 것이다. 이 설은 기생에 관련된 지명이기 때문에 기생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의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조선조 당시 동래군 남면에서 가장 고위층이 경상좌수사였기 때문에 이기대의 유래를 좌수사와 두 기생들과 이곳에서 놀았다고 추측했다. 이 설을 살펴보면 내영지와 부합되지 않고, 두 기생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생설은 잘못된 것이다.

---

1)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2014. 7. 31. 부산 남구청.

2) 위 ‘각주1)의 책에서, 〈II부 남구, 과거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다〉 편 ‘남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P152~P160) 중 기생설(妓生說), 큰무덤설(二妓塚說), 의기대설(義妓臺說).

두 번째는 의기대설(義妓臺說)<sup>3)</sup>이다. 이기대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18년 전에 TV와 신문 지상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향토사학자인 최한복(崔漢福 : 1895~1968)은 그의 저서인 『수영유필(水營遺筆)』의 수영팔경(水營八景) 중에 남양낙안(南陽落雁)이라는 글에서 이기대를 의기대(義妓臺)라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는 큰무덤설(二妓塚說)<sup>4)</sup>이다. 이형하는 지금부터 161년 전인<sup>5)</sup> 1850년에 내영지 산천조에 이기대의 유래에 대하여, “두 기생의 큰 무덤(塚)이 있어서 이기대라 불린다.”라고 기술되어 있고, 실제로 이기대에는 내영지의 기술대로 두 기생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2기의 큰 무덤이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대의 유래에 대한 사실에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이상, 세 가지 설을 해당 부분만 향토사에서 발췌하여 간략하게 옮겨보았다. 이 세 가지 설은 우리 고장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용호동, 대연동 등지에서 전해지고 있는 구전을 오랫동안 수집·채록해서 대표적으로 간추려 정리한 노력의 산물이다. 하지만 낭설과 이설의 혼재 속에서 이기대의 유래를 정립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렀으니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3) 뒷장 '1장 2. 이기대에 관한 세 가지 설(說)의 실제' 중 '2) 의기대설'에서 설명되는 내용 및 뒤의 '각주 26' 참고.

4) 큰무덤설(二妓塚說)은 한글과 한자가 달라 혼란스러우므로, 이 글에서는 두 기생의 큰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이기총설(二妓塚說)'로 명명하고 사용하였다.

5) 이기대 관련 향토사를 개인적으로 정리해서 쓰기 시작했을 때의 시기로 보인다.

## 2. 이기대(二妓臺)에 관한 세 가지 설의 실체

### 1) 기생설(妓生說)

조선 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 '이하, 경상좌수영')의 좌수사를 지낸 이형하(李亨夏)는 통정대부 행절도사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이하, 줄여서 '승지')<sup>6)</sup>으로 전임한 철종 원년(1850), 그가 좌수사 재임 때 자신의 족인(族人)<sup>7)</sup>과 좌수사를 보필했던 책실(冊室)<sup>8)</sup>이 모은 자료를 취사(取捨)·첨삭(添削)한 자료에 직접 서문(序文)을 써서 내영(萊營), 즉 동래수영(東萊水營)의 설치 내력부터, 군사 행정기관으로서의 군사(수군), 지리, 풍속, 지방 사정 등 다방면에 걸친 제반 상황을 총 51개 부문에 걸쳐서 설명한 『내영지(萊營誌)』<sup>9)</sup>를 편찬한다.

이 『내영지』<sup>10)</sup>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대 좌수사 중 자신의 재임기 동안 박봉을 쪼개거나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좌수영 성내의 누각과 망대 등 노후 된 곳을 중수(重修)하거나 창건(創建)한 경우도 있는데, 공사를 마친 뒤 상량문(上梁文)을 쓰거나 혹은 편액(扁額),

---

6) 뒷장인 '1장 5. 이기총(二妓塚)을 역사에 등장시킨 『내영지(萊營誌)』에서 이 관직을 설명하고 있다.

7) 승지 이형하와 성(姓)과 본(本)이 같은 손아래 먼 친척.

8) 문서나 사무를 보던 좌수사의 비서.

9) 뒷장인 '1장 5. 이기총(二妓塚)을 역사에 등장시킨 『내영지(萊營誌)』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0) 『국역 내영지(國譯 萊營誌)』를 일컬음 : 부산사료총서 8(단행본 245p.; 23cm.), 국역 정경주(鄭景柱), 감수 이원균(李源鈞).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1. 04.

비갈(碑碣) 등을 세우고 그 힘들었던 과정을 소회로 쓴 기문(記文)을 남겨놓고 있다. 여기에는 외적에 대비한 해안 방비와 국경 강화의 막중한 책무를 맡겨준 임금의 은혜와 함께 스스로를 ‘부족한 자신’이라 표현하며 그 소임을 다하고자 하는 충정이 나타나 있다.

특히 『내영지』<sup>11)</sup>의 이 ‘기문편(記文篇)’에는 조선의 팔도(八道)<sup>12)</sup> 해안을 호시탐탐 노략질해 온 왜구(倭寇)를 일컬어 ‘왜귀(倭鬼)’, ‘칠치(漆齒)<sup>13)</sup>’, ‘바다의 도적 떼’, ‘섬의 야만인’, ‘무도한 왜노(倭奴)’, ‘남방의 야만인’ 등으로 표현하며 피침의 치욕을 갚고자 하는 좌수사들의 절치부심하는 목소리가 보이고, 유사 이래 가장 큰 환란인 임진왜란 같은 국난이 되풀이되어서 안 된다는 충만한 결의도 읽을 수 있다.

일본열도의 왜구는 호시탐탐 조선 팔도의 해안을 침범하여 쌀 등의 곡식과 각종 어패류 및 수산물 등을 닥치는 대로 노략질했다. 조선 팔도 중 하삼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의 피해는 다른 해안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였으며, 그중에서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피해가 극심하여 수군절도사가 관장하는 좌수영과 수군통제사가 관장하는 우수영을 경상도와 전라도에 각각 설치하게 되었다.

---

11) 『국역 내영지』를 일컬음.

12) 조선 때, 국토를 여덟 개로 나눈 행정 구역. 곧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 동아새국어사전(1989).

13) 다르게는 ‘흑치(黑齒)’. 일본인들이 “이빨에 칠을 하여 검게 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국역 내영지』의 각주 193)에 의함.

이 중 경상좌수영은 낙동강을 가운데 두고 부산포와 경상남도 일부, 경상북도 끄트머리까지 이르는 동남해안 방어에 주력한 수군의 본영(本營)이자 본진(本鎭)으로서 정3품의 무관(武官)인 경상좌도수군절도사<sup>14)</sup>(慶尙左道水軍節度使, 이하, 경상좌수사' 혹은 '좌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거진(巨鎭)인 첨사영(僉使營)과 제진(諸鎭)인 만호영(萬戶營)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경상좌수영의 수군 운영 체제는 일본열도와 가장 가까운 군사 요충지로서 부산포가 항상 왜구의 출몰에 대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고, 임진왜란 이전만 해도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3개 도시를 아우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구, 치안, 군사 등의 초광역(超廣域) 도시를 관장하였음이 『내영지』 국역본의 내용만으로도 그 역할과 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상좌수사가 해안 방어와 국경 강화, 치안 및 민생까지 챙겨야 하는 소임을 다하느라 하루해를 보내기 바빴을 텐데 언제, 어느 때 임용된 좌수사가 두 기생을 데리고 봄날의 만화방창(萬化方暢)에 겨워서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해안 절경의 이기대에

---

14)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처음에는 ‘수군도절제사(水軍都節制使)라 하다가 세종 2년(1420) 10월 27일(임술)에는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로 명칭을 바꾸었고, 세조 12년(1466) 정월 15일(무오)에 다시 ‘수군절도사’로 개칭하였다.”- 『통합 울산 선생안(統合 蔚山 先生案) 역대 관안(歷代 官案)』, 2015. 7,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 이 책의 ‘경상좌수영선생안(慶尙左水營先生案) 편 P63 [일러두기] 두 번째 내용 전문임.

서 놀았다는 말인지, 아니면 좌수영 성내에 마련된 부용당(芙蓉堂)<sup>15</sup>에서 두 기생과 함께 주지육림(酒池肉林)으로 황음무도(荒淫無道)한 하루해를 지우면서 백성을 도탄에 빠트리는 짓을 저질렀다는 말인지, 기생설에 강한 의구심이 치솟는다.

굳이 그 의구심을 재우자면, 아마도 태평성대 어느 시기에 풍류 깨나 율을 줄 아는 한 벽면서생(白面書生)이 주유천하(周遊天下)의 유람 길에 올랐다가 이기대의 끝없이 펼쳐진 천혜의 기암괴석과 해안 절경에 취해 지어낸 한 토막의 이야기였거나, 혹은 여성 편력과 향락에 빠진 한 양반이 체면상 자신을 드러내지는 못하겠고, 골계잡록(滑稽雜錄)이나 야설(野說) 따위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벼슬아치(좌수사)와 기생놀이’를 갖다 붙인 모티브(Motive)를 확장해서 그 유래를 생성시켰던 것은 아니었을까?

구전에 의하면, 임진왜란 발발 3년 전 대마도(對馬島)의 승려 겐소(玄蘇)<sup>16</sup>가 용호마을<sup>17</sup>을 다녀갔다. 용호마을에 살고 있던 두 기생도 웬지 차림새가 어색해 보이는 겐소를 봤다. 겐소가 용호마을에

---

15) 기생의 가무(歌舞) 교육장인 교방(教坊)의 별칭.

16) 본명은 게이테쓰 겐소(景轍 玄蘇, 1537~1611). 그는 하카타(博多) 쇼후쿠지(聖福寺) 주지-교토(京都) 도후쿠지(東福寺) 주지-대마도주 소 요시시게(宗義調)의 초대 대마도로 건너가 세이잔지(西山寺) 주지를 지냄. 임진왜란 때는 조선 침략군 1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에 종군하였고,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기유약조(己酉條約, 1609년)를 성립시키는 외교 역할도 함.

17) 용호동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 두 기생이 살았던 오늘날의 용호동 본동(현 용호동 성모병원 맞은편 일대). 임진왜란 당시 30여 호(戶)가 살았다고 함. 『내영지』 방리조(坊里條)의 ‘분포리(盆浦里)’를 일컬음.

나타난 것은 그가 조선에 수신사(修信使)를 요청하는 일본 측 사절단의 왕사(王使)로 드나들면서 조선의 동서 해안은 물론 남해안 일대를 정탐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향토사 연구자들은 그의 출현이 생소한 것은 아니라는 견해에 동의해 왔다.

만약 구전대로 두 기생과 승려 켄소의 우연한 조우가 사실이라면 임진왜란 때 문적(文籍)이 없어져 도입 시기를 알 수 없는 좌수사 박홍(朴洪 ? ~ 1592. 4)부터 직전 좌수사 윤사흠(尹士欽)<sup>18)</sup>, 그 직전 좌수사 이경(李璟)<sup>19)</sup> 때쯤의 일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경상좌수사 3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 좌수사가 두 기생을 가까이 두었다든지, 아니면 전임지로부터 데려왔는지 하는 내용의 구전은 전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발발 후 왜군에 의해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동래부사 송상현(東萊府使 宋象賢, 1561~1592)<sup>20)</sup>, 부산첨사<sup>21)</sup> 정발(釜山僉使 鄭撥 1553~1592)<sup>22)</sup> 장군의 죽음을 함께 했던 기생 금섬(金蟻), 기생 애향(愛香)의 절의(節義)를 봤을 때 만약 기생설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경상좌수사 박홍이 좌수영을 버리고 달아날 때 두 기생 역시 그를 따라갔다고 해야 그나마 미미한 개연성이라도 얻을

---

18) 『국역 내영지』의 '선생안'에서 가져옴.

19) 『국역 내영지』의 '선생안'에서 가져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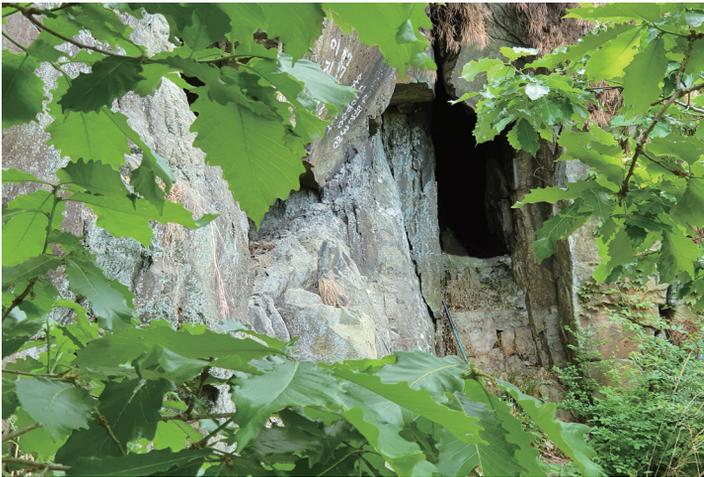
20) 임진왜란 때 동래부사로서 동래성 전투 중 왜군과 교전하다 순절하였다.-『국역 내영지』.

21) 『국역 내영지』의 표현을 따름.

22)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로 부산진성 전투 중 왜군의 조총을 맞고 전사하였다.-『국역 내영지』.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이기대의 유래는 임진왜란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태동한다. 구전에 의하면 왜군 대병력이 오늘날의 부산 남구 우암만 모래사장으로 상륙한 뒷날인 임진년 4월 15일(음력) 밤, 두 기생이 동산말(曠山末)<sup>23)</sup> 석굴에 숨어 수영성 상황을 살피던 중 개가 짖는 바람에 순찰 중인 왜군에 발각돼 수영성으로 끌려간다. 그로부터 약 열흘 뒤, 왜군 주둔군의 승전 자축연에 끌려 나온 두 기생이 만취한 왜장들을 끌어안고 바다로 몸을 던진 순절이 그 시작이다.



동생말(동산말) 석굴

두 기생의 순절 후 매년 음력 4월 25일 이곳에서 추모제를 올렸다고 한다.  
(사진④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23) 현재 이기대 초입의 '동생말'로 불리고 있는 곳. 풍수지리상 '용의 눈자리'에 해당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눈둥자 동(曠)' 자를 써서 '동산(曠山)'이 원래 지명이라고 한다. 한편, 용호동 경주 최씨 족보에는 1813년경 이곳에 구리 광산이 있어서 '구리 동(銅)'을 써서 '동산좌원(銅山坐原)', 즉 '동산의 언덕에 안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용호마을 주민들은 왜군 치하에서도 천추 한을 품고 떨어진 두 기생의 죽음을 애달파하며 기렸다. 두 기생이 평소 마을 사람들에게 어로(漁撈) 방법, 조수간만에 따른 사리<sup>24)</sup>와 조금<sup>25)</sup>의 물때 세는 법, 바느질, 약초 효능에 따른 병 구완, 글을 가르치는 등 여러 가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준 은사적(恩師的) 고마움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해마다 기일이 되면 두 기생의 제사를 지내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기대의 유래가 생성되기 시작했다. 그런 까닭에 일련의 개연성도, 생성 시기도, 설득력도 없는 ‘기생설’은 한갓 낭설(浪說)에 불과하다.



동생밀 전망대

사진©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 24)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큰 때.
  - 25) 밀물과 썰물의 높이 차이가 가장 작은 때.

## 2) 의기대설(義妓臺說)

이기대의 기생이 ‘의기(義妓)’라고 주장한 분은 수영의 향토사학자 최한복(崔漢福) 선생이다. 최한복 선생은 자신의 저서 『수영유필(水營遺筆)』에서 <수영팔경가(水營八景歌)> 중 제4경(第四景)인 ‘남양낙안(南陽落雁)’에 이기대를 ‘의기대(義妓臺)’라고 언급하였다.<sup>26)</sup> 가사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남양낙안(南陽落雁)	
석양 비긴 양장로(羊腸路)로 신선대 찾아가니 신선이 안재재(安在哉)요. 빈 대(臺) 홀로 뿐이로다.	
오륙도 곁에 두고 경치 쫓아 내려가니, 절벽 거꾸러진 곳이 창해가 지척이라. 석벽에 새긴 글자 의기대(義妓臺)가 여기로다.	
의기의 천추 원한 망경대(望境臺) 전(前) 백마탄(白馬灘)과 박모(薄暮)에 울어 있다.	
... (하략)	
* 양장로(羊腸路) : 양의 창자같이 꼬불꼬불한 길	
* 안재재(安在哉) : 어디에 있는가?	
* 망경대(望境臺) : 금련산 줄기가 끝나는 광안리(광안2동 언덕)에 있던 옛 토산.	
* 백마탄(白馬灘) : 흰 백사장이 마치 물살이 흐르는 여울처럼 보인다는 뜻인 듯	
* 박모(薄暮) :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땅거미.	

26) 최한복(崔漢福 1895~1968). 부산 수영의 향토사학자. 남양낙안(南陽落雁)은 그의 수영팔경가(水營八景歌) 중 제4경(第四景). 부산시 수영구청 홈페이지 ‘문화관광’에 소개된 제목은 ‘남장낙안(南場落雁)’으로 되어있다. 남장(南場)은 남촌(南村) 앞 백사장(오늘날의 광안해수욕장)을 일컫는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부산 남구 향토사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P156의 ‘남양낙안(南陽落雁)’의 제목과, 수영고적민속예술포럼협회 홈페이지의 수영문화사적 ‘05. 최한복 선생 수영팔경비’ 및 ‘제4경 남양낙안(南陽落雁) 전문’의 제목과, ‘일제(一濟) 최한복 선생 수영팔경가사비’(2004년 11월 20일, 토향회)에 명기된 ‘남양낙안’의 제목을 따랐다.

이기대의 명칭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 TV와 부산일보에서 거론된 바가 있다. 이때 최한복 선생은 ‘의기(義妓)’가 누구인지 아무리 조사해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당시 최한복 선생이 동아대 학교 박지홍 교수에게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진왜란 때 왜구들이 수영성을 함락시키고서는 부근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 축하잔치를 열었다. 그때 수영의 한 의로운 기생이 자청해서 그 잔치에 참가하여 왜장에게 술을 잔뜩 권하고서는 술 취한 왜장을 끌어안고 물속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뒷날 이 대를 이기대라고 부르게 되었다.”-(부산일보 1993년 7월 22일 자, 박지홍 교수의 칼럼 중에서) 27)

위의 대화 내용을 미루어 보면, 최한복 선생의 이기대 유래에 대한 전설은 승지 이형하가 『내영지』에서 밝힌 짧은 기사 한 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한복 선생이 이와 같은 내용을 박지홍 교수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기생에 대한 전설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일이다.

최한복 선생은 1895년에 태어나서 1968년 졸(卒)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승지 이형하가 『내영지』를 편찬했던 1850년에서 계산상으로는 불과 45년 뒤에 태어난 선생은 경상좌수영 본영이 소재했던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을 터전으로 성장하던

---

27) 앞의 ‘각주 1)’의 책, <II. 남구, 과거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다(P152~P160)>의 ‘2. 이기대(二妓臺) 편에서 발췌.

서 자연스럽게 주위의 손윗사람이나 어른들로부터 이기대의 전설을 듣고 자랐을 것이라는 점은 유추되고 남음이 있다.

그러나 최한복 선생이 박지홍 교수에게 말한 이기대의 전설은 용호마을 사람들에 의하여 전해진 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전설의 주인공인 두 기생에 대하여 자세하지도 않고 꼼꼼하지도 않지만 『내영지』의 ‘산천조’에 적힌 내용과도 다르다. 그 점을 짚어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추려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왜장이 배설한 승전 자축연(勝戰自祝宴)에 한 명의 의로운 기생이 자청하여 참석한다.

둘째, 왜장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어 죽은 의로운 기생이다.

셋째, 기생이 살았던 곳이 수영이라고 하였다.

넷째, 아무리 조사하여도 기생이 왜장과 순절했다는 사실과 그 기생의 이름을 알 길이 없다고 하였다.

다섯째, 이기대 너른바위 후면 석벽에 ‘의기대(義妓臺)’가 새겨져 있다고 하였다.

위 내용 중 첫째로, 왜장이 배설한 승전 자축연에 참석했던 조선 기생이 1명이라는 것은 2명인 『내영지』의 ‘이기충’, 즉 ‘두 기생의 큰 무덤’에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로, 의로운 기생은 왜장 지휘관과 부지휘관을 각각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2명의 자매지간 기생이다.

셋째로, 기생이 살았던 곳이 수영이라고 하였는데 그 ‘수영’이 좌수영 영내에 살았는지, 성내 교방(教坊)이었는지, 어느 여염집이었는지 언급되지 않았다.

넷째로, 『내영지』의 기사에 나타난 ‘이기총(二妓塚)’은 2명이다. 두 기생의 이름은 ‘남이’와 ‘경아’로 전해진다.

다섯째로, 이기대 석벽 하단부에는 2021년 오늘 현재 ‘義妓臺(의기대)’가 아니라 아래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붉은색을 입힌 ‘二妓臺(이기대)’ 세 글자가 확연하게 새겨져 있다.

환언하면, 최한복 선생의 ‘의기대설’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난다. 이기대의 유래에 닿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깊은 관심을 가지기에도 거리가 멀다.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다면 순절한 기생이 1인이든 2인이든 ‘의기’에는 그 정의가 부합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최한복 선생의 ‘의기대설’은 그에 따른 개연성이나 신빙성을 가진 소략한 자료도 없다. 그런 까닭에 이기대의 유래로 받아들이기에는 여러모로 무리가 있다.



석벽 하단에 새겨져 있는 ‘二妓臺(이기대)’ 세 글자.  
사진⑥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3) 이기총설(二妓塚說)

이기총(二妓塚)은 승지 이형하가 편찬한 『내영지』 ‘산천조’에 기록돼 있다. 그 내용은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sup>28)</sup> 상유<sup>29)</sup> 이기총운(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塚云)”이라 하여, “이기대는 좌수영 남쪽 15리에 있다. 위에 두 기녀의 무덤이 있다 한다”<sup>30)</sup>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 이기총은 일반인의 무덤보다 서너 배쯤 크게 조성돼 있다. 지금의 이기대 너른바위가 있는 곳에서 대략 후방 5시 방향으로 해안산책로를 가로질러 장자산 산정을 향하면 얼마 올라가지 않아 두 기의 큰 무덤 앞에 닿는다.

두 기생의 큰 무덤 2기를 둘러보면 무엇보다 의아한 생각부터 든다. 일반적으로 묘소가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이 전혀 없다. 무덤 앞에 비석은커녕 작은 석물조차 없다. 큰 봉분 2기가 약간의 경사면에 안정적으로 조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바다를 바라보는 동편과 북편만 그렇게 보이고, 서쪽 면과 남쪽 면은 산세가 흘러내리는 얇은 경사면 그대로여서 자연적으로 곡장(曲牆)이 되어버린 셈이다. 여기에 노송 몇 그루가 곡장처럼 둘러 서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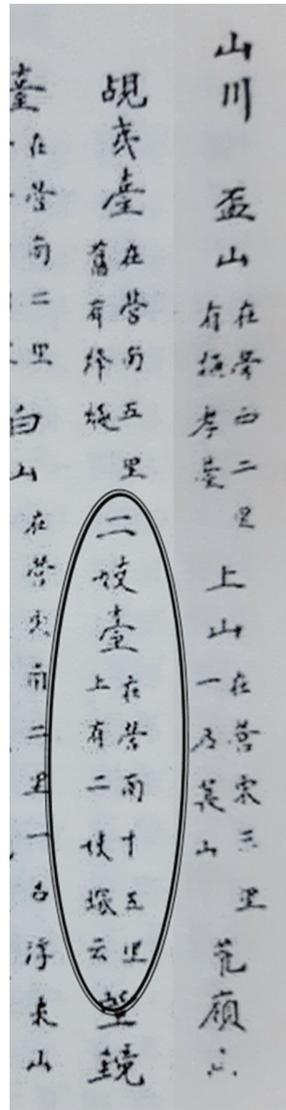
28) 본음인 ‘십오리’에서 받침 ‘ㅂ(비읍)’이 탈락된다. 시오리(十五里) : 십 리에 오 리를 더한 거리 - 동아국어대사전, 포털(다음, 네이버) 국어사전.

29) 큰 무덤 2기가 있는 곳은 두 기생이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너른바위에서 장자산 산정을 오르면 3부 능선쯤에 있어서 그 위치를 ‘상유(上有)’로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30) 『국역 내영지』에 따름.

그런데 『내영지』에는 이기대의 큰 무덤 2기를 분명 ‘총(塚)’으로 기록했다. 예로부터 사람이 죽어서 묻히는 무덤, 즉 유택은 죽은 자의 신분에 따라 능(陵), 원(園), 분(墳), 묘(墓), 총(塚) 등으로 달리 불렸다. 이에 견주어 이기총은 ‘단순히’ 당시의 일반 백성들 무덤보다 서너 배쯤 크다고 ‘총’으로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누군가 이 ‘총’에 대하여 이른바 ‘주인을 모르는 규모가 큰 무덤’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기대에 있는 큰 무덤 2기가 정말 두 기생의 무덤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의문을 푸는 데에는 먼저 두 기(基)의 큰 무덤이 손상되지 않도록 컴퓨터 단층촬영(CT), 초음파 탐상기, X-레이, 지표투과레이더(GPR탐사) 등의 동원 가능한 첨단 정보 기술을 이용하여 두 무덤의 주인과 분묘 양식을 1차 확인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영지』 산천조에 기록된 ‘이기대 유래’ 사진② / 출처: 『국역 내영지』 ‘원문편’에서 발췌·편집

만약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면, 두 무덤의 주인이 임진왜란 때 왜 장들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으로 400여 년 넘게 지역사회에 전해져 왔으므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정도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해 본다.



두 기생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묘소  
사진⑥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 명예교수 · 수필가

① 두 기생의 체격 조건은 최근 발견된 임진왜란 당시의 여성 분묘에서 출토된 미라의 분석 결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두 기생의 나이가 체격 조건과 비교 대상이라면 순절 당시 언니가 갑술생(甲戌生. 1574)인 19살, 동생이 병자생(丙子生. 1576)인 17살로 전해지고 있다.

② 두 기생의 무덤은 회격묘(灰隔墓)<sup>31)</sup> 형식을 따랐을 것이다. 그

---

31) 석회를 다져서 축조한 무덤.

이유는 조선 시대 대표적인 묘제였지만, 임진왜란 이후 약 4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봉분이 크게 가라앉는 등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최근 이와 같은 회격묘에서 출토된 수백 년 전의 미라 및 부장품 등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는 매스컴 보도에서도 그 점을 추정케 한다.

③ 두 기(基)의 무덤 외형과 봉분 크기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비슷하다. 그러므로 무덤 양식과 조성 시기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어쩌면 일시에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 두 기의 무덤을 동시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두 기생의 갑작스러운 순절로 인한 긴박한 장례를 치르느라 부장품이 전혀 없거나, 정반대로 용호마을 사람들이 비녀, 가리마(여성용 쓰개), 참빗, 노리개 정도의 방물(方物)은 마련해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해본다. 후자의 경우는 좌수영성 주둔 왜군의 통제 없었거나 혹은 소홀했다고 전제해야 가능한 일이다.

⑤ 처음부터 반지 정도는 끼고 있었을 것이다. 구전에 의하면, 두 기생이 만취한 왜장들을 각각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졌을 때 한동안 시체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손을 깍지 끼었다면 반지가 일종의 자물쇠 역할을 했을 것이고, 왜장들이 발버둥 칠수록 해안 바닥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자생하는 개모자반<sup>32)</sup>에 더욱 휘

---

32) 식용으로는 채취하지 않는다. 그 때문인지 '외톨개모자반(Myagropsis myagroides)'을 줄여서 쓸모없는 뜻으로 '외톨'을 떼고 '개모자반'으로 부르기도 한다. 최대

감겨 빠져나오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외틀개모자반(Myagropsis myagroides) ▼



사진㉔(상), 사진㉔(하)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옹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⑥ 복식(服飾)은 임진왜란 당시 양인들이 입던 평상복 이상은 아니었을 것이다. 두 기생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공적 연회에 동원될 때처럼 화려한 옷을 갖추어 입었을 리 만무하거니와, 염습(殮襲) 때 별도로 마련한 수의(壽衣)를 입힐 만한 경황은 없었을 것으로 추정

---

30m 이상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굳이 식용으로 하려면 초벌 삶아서 질기고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고 다시 삶아서 요리해야 그나마 식용 가능하다고 한다.

된다.

이상, 위에서 나열한 여섯 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맞는다면 두 무덤의 주인은 우리에게 “천추의 한을 지닌 채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마치 그 말을 임진왜란 258년 뒤 꿈에서 들은 듯 승지 이형하는 『내영지』 서문<sup>33)</sup>에 다음과 같은 심정을 토로(吐露)하였다.

“……적에게 대항하였던 이들의 산과 바다를 두고 변치 말자 맹세한 공신(功臣)의 철권(鐵券)<sup>34)</sup>에 실리지 않았으며, 황령산(黃嶺山)<sup>35)</sup>의 지는 달과 장산(長山)<sup>36)</sup> 냇가의 가을비는 귀신이 하소연하는 듯 구슬프다. 아아 참으로 참혹하여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사적(事蹟)이 묻힌 채 알려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 글에 나타난 승지 이형하의 ‘통탄할 일’은 그 대상이 이기충의 주인인 두 기생이 아니다. 그 대상은 “임진년 변란에 송상현(宋象賢)<sup>37)</sup>, 정발(鄭撥)<sup>38)</sup>, 윤흥신(尹興信)<sup>39)</sup> 세 분이 차례로 순절하고, 막

---

33) 『국역 내영지』의 서문, 해당 내용 일부만을 발췌하였다.

34) 옛날 공신(功臣)에게 내려주던 훈공을 기록한 책-『국역 내영지』

35) 부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높이 225m의 산. 『국역 내영지』 ‘산천조’에는 “본영 서쪽 10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다.

3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높이 634m의 산. 『국역 내영지』 ‘산천조’에는 “본영 동쪽 3리에 있다.”라고 하고 있고, 본래 이름은 ‘상산(上山)’으로 기록돼 있다.

37) 앞의 ‘각주 20’) 참고.

38) 앞의 ‘각주 22’) 참고.

39) 임진왜란 때 다대첨사(多大僉事)로 왜군과 교전 끝에 전사하였다. 생몰년(? ~ 1592).-『국역 내영지』

하(幕下)의 장수와 기첩(妓妾) 및 병사와 주민들”이다. 이 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기총과 관련한 두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료하게 가리킨 문헌은 『내영지』가 유일하다. 따라서 그녀들의 천추 한이 이 ‘통탄할 일’에 투영된 듯 읽힌다.

이 『내영지』의 기록 못지않게 두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리키는 증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구전(口傳)’이다.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의 순절을 목도한 조선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당시 현장에는 조선 기생들과 일꾼 등 여러 명의 조선 사람들이 있었기에 400여 년 넘는 오늘날까지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이 일어났던 진원지와 당시의 난잡한 연회장 모습까지 전해져 올 수 있었다.



두 기생의 순절 장소인 '너른바위'와 돌개구멍  
사진⑩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두 기생의 순절 장소는 한때 공룡 발자국으로 알려졌던 곳으로,

돌개구멍이 불규칙적으로 나 있는 동산말의 너른바위<sup>40</sup>)가 있는 곳이다. 바다 쪽으로 약간 경사가 지긴 했으나 이 너른바위는 암반 끝에 파도가 들이치지 않는다면 어림잡아 100명 정도는 앉을 만큼 넓디넓다. 이 너른바위 뒤편은 직각 형태를 이루고 있는 석벽이 있고, 이 석벽 하단에 ‘二妓臺(이기대)’ 세 글자가 음각(陰刻)으로 새겨져 있다.

오랫동안 서예와 한문을 가까이해 온 남구 향토사 연구자의 한 분인 대연동 토박이 경주 이씨 이소명(李小明)<sup>41</sup>) 선생은 온갖 자전(옥편)을 뒤진 끝에 이 음각된 ‘二妓臺’ 세 글자의 자체(字體)가 전한시대(前漢時代, 기원전 74~기원전 49)부터 사용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전한시대 글자체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중국의 여러 왕조를 거치고 이윽고 한반도로 유입되어 사용되었더라도 그 글자체를 사용하여 이기대 석벽에 누가, 언제, 왜, 음각으로 새겼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우리 고장 혹은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의 여행객들도 천혜의 절경인 이기대를 방문해서 너른바위 석벽에 새겨진 ‘二妓臺’ 세 글자를 본 숫자만 해도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넘을 것이다. 이들 중 누군가는 석벽에 새겨진 세 글자의 음각 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보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

40) 옛날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흘러내리다가 바닷물에 닿으면서 용암이 식어 굳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동산말(현, 동생말) 벼랑 아래에 있는 매우 넓은 암반.

41) 뒤의 ‘각주 125), 각주 126), 각주 127), 각주 128)’ 참고.

조상이 싸움터에 나와서 방탕한 짓을 벌이다가 조선의 두 기생에 의해 바다에 빠져 죽은 치욕을 들춰내도록 놔두었을까 싶다.

또 일본은 태평양전쟁(太平洋戰爭)을 발발시켜 1945년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선언을 할 때까지 식민지 한국에서 온갖 전쟁물자 수탈은 물론, 연합군 군함과 비행기 공습에 대비하여 오륙도 해안 일대에 장기간<sup>42)</sup>에 걸쳐서 포진지(砲陣地)<sup>43)</sup>를 구축하느라 많은 조선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했다. 그와 같은 긴장 속에서 과연 인근의 이기대 석벽에 글자를 파내는 거사가 무난하게 치러질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 일제 강점기를 지나 대한민국 광복 이후 어느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 글자를 석벽에 새겼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역시도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왜냐면 한국전쟁 이후 남북 분단 속에서 언제부터인가 이기대 일대 해안은 군부대 경계근무 지역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전 해안에 철책선이 쳐지고 민간인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다가 1993년에서야 민간에 개방되었다.

---

42) 1924년~1932년까지 8년간 - 앞의 '각주1)'의 책 P319, '8. 일본군 포진지' 참고.

43) 전함에 탑재되는 408mm 함포를 지상에 구축한 포진지. - 앞의 '각주1)'의 책 P319, '8. 일본군 포진지' 참고.



사진②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그런 까닭에 이기대 석벽에 음각으로 새긴 세 글자는 최소 대한 제국 이전의 시기였거나 그 이전, 혹은 더 저슬러 올라가 『내영지』 편찬에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승지 이형하의 족인(族人) 상사(上舍)<sup>44</sup>와 좌수영의 책실(冊室) 현도(玄都)<sup>45</sup>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된다. 왜냐면 『내영지』 서문<sup>46</sup>에 승지 이형하는 이런 말을 남겼다.

44) 생원, 진사 등 성균관 학생의 신분 - 『국역 내영지』

45) 승지 이형하의 일가붙이는 “족인 상사”라고 하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책실만 그 이름을 ‘현도’로 밝힌다면 표현이 어색해 보인다. 오늘날의 문장 표현법인 ‘대구법(對句法)’이 적용되었다고 보면, ‘현도’는 조선 시대 관아의 책과 문서 등을 보관하는 별관(도서관)을 지칭하기도 했으므로, ‘박학다식하다’는 의미로, 책실을 높여서 부르는 ‘이칭(異稱)’이라 짐작된다.

46) 『국역 내영지』의 서문.

“(죽인과 책실이)<sup>47)</sup> 보고 들은 것을 서로 참조하고 사적(史蹟)을 널리 수집하여 부연하여 늘이고 번거로운 것은 깎아 버리고 한 책을 만들어 참고의 자료로 삼으니, 내 마음을 알아준 것이라 하리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면 경상좌수사 이형하가 임기를 마치고 경술년(庚戌年, 1850) 9월 상순, 통정대부 행절도사<sup>48)</sup> 승정원 우부승지겸<sup>49)</sup> 경연참찬관의 경관직(京官職)에 제수되어 한양으로 올라간 뒤 그의 죽인과 책실에게 『내영지』에 이름을 등재하지 못한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을 기리고자 하는 뜻을 전하고, 그 두 사람은 그곳 석벽에 ‘二妓臺’ 세 글자를 새겼을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이 1871년 4월경 전국 각지의 도로변에 세운 척화비(斥和碑)와 비교해 보면 이기대 석벽에 글자를 음각한 시기를 대략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척화비에 새겨진 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7) 필자가 임의로 주어를 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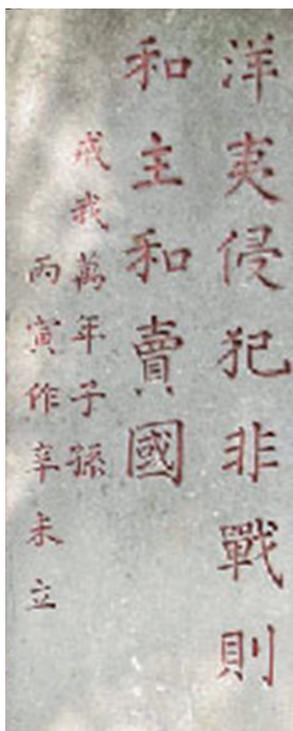
48) 행수법(行守法)에 따라 관직이 품계보다 낮은 경우에는 ‘行(행)’, 관직이 품계보다 높은 경우 ‘守(수)’를 관직명 앞에 기재하는 것이다. - 영조(英祖) 교지(教旨) ‘해제 보기’- 국회전자도서관.

49) 『내영지』 원문에는 ‘우부승지겸(右副承旨兼)’으로 붙여서 썼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을 하자는 것  
이고 화친을 하자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니 이를 자손만대에 경  
고하노라. 병인년에 짓고 신미년에 세운다.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

가덕도 척화비(加德島 斥和碑) 50)



사진④ / 출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이기대 석벽



사진③ / 출처 : 앞의 '사진⑥'을 편집한 것임

50)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5호. 부산에 현존하는 3개의 척화비 중 하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홈페이지 > 문화관광 > 가덕도척화비. 높이 145cm, 너비 45cm, 두께 16cm.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기 위해서 돌의 크기, 두께, 너비 등 규모가 조금씩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화강석 재료를 모으고, 석공들을 동원해서 24자의 크고 작은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는 데 소요된 기간을 고려하면, 위 비문에도 있지만 ‘병인년(1866)에 짓고 신미년(1871)에 세웠어도’ 오늘날 음각으로 새긴 글자의 마모 상태가 선명해 석문(石文)의 가치를 온전히 지니고 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척화비와 이기대 석벽의 세 글자를 단순 비교하더라도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 육안으로 비교해 본다는 점, 또 이기대 석벽에 새겨진 글자는 음각 시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 척화비의 화강암(花崗巖) 재질과 현무



사진<sup>㉔</sup> / 제공 : 광태욱 향토사연구가 · 소설가

암(玄武巖)으로 추정되는 석벽의 재질이 전혀 다르고, 설치 장소도 전혀 다르다는 점. 또 염분을 머금은 해풍, 먼지, 안개, 일조량 등 음각의 마모도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그렇지 않은 장소에 설치돼 있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생각해야 하는 별도의 문제 하나가 대두된다. 그것은 경상좌수영 본영이 있던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사적공원(水營史蹟公園)에 있는 사적(史蹟) 때문이다. 바로 ‘이기대 유래’를 역사 전면에 등장시킨 『내영지』의 편찬자인 통정대부 우부승지 이형하의 손길이 25의용단(義勇團)<sup>51)</sup>을 기리는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 뒷면의 ‘의용단비명(義勇團碑銘)’이라는 제하의 글에 남아 있었다.

부산역사문화대전에 따르면, 25의용단 건립 경위는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張寅植)이 지금의 수영사적공원 자리에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를 세워 글을 짓고 승지(承旨)를 지낸 이형하(李亨夏)가 글씨를 썼으며, 첨정(僉正) 백채현(白采絢)이 감독을 맡아 건립하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 의용제인비 뒷면에 새겨진 ‘의용단비명’의 제명(題名)은 글자 크기가 본문 글자에 비해서 훨씬 크고 음각된 깊이도 깊다. 글자 마모는 심하지만 그래도 유심히 바라보면 흐릿한 상태의 제명을 읽을 수 있다. 이에 비해 비문에 새겨진 본문 전체 글자는 비석 전

---

51)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12호. 25의용단 의용사(義勇祠) 소재.

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글자가 새겨져 있고 글자 크기도 작아서 음각할 때 글자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시달려 마모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탓인지 글자를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문화관광과에 도움을 청하여 의용제인비(의용제인비명)의 원본과 국역본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용단비명

옛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이 잘 다스려지면 공(公)도 되고 경(卿)도 되지만 세상이 어지러우면 뱀이나 돼지 경(獍)이나 올빼미처럼 되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다.”라고 하였다. 임진(壬辰)년 삼나라 오랑개의 난리에 동래부가 처음 적의 예봉(銳鋒)을 받아서 부(府)와 진(鎭)이 차례로 함락되었으니 절의(節義)로 순절(殉節)한 사람들은 역사책에 실려져 있어 해나 별처럼 뚜렷하다. 오직 이곳 수영(水營)의 장수는 싸움터에서 죽지 않았으니 적병의 협박에 따라 그 명령을 듣고 오랑개 옷을 입고 오랑개 말을 하게 된 것도 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충성을 떨쳐서 죽었더라도 잊혀져 전해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난리가 끝난 지 17년 뒤에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sup>52)</sup> 공이 부사로 와서 백성들의 탄원서에 따라 25인의 행적과 7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의 전투 행적을 탐문하고 의용 두 글자를 여러 집의 대문에 걸게 하며 정방에 먼저 기록하였다. 이때는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으니 반드시 상세하게 조사했을 것이다. 그 뒤 우한원(吳翰源)<sup>53)</sup> 공이 부역을 면제해 줌으로써 포상하고 글을 지어 표창하였다.

(중략)

- 
- 52) 1571~1637. 1608년(선조 41년) 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09년 7월까지 재임함. : 부산금석문(2002. 12) 국역본 “수영구 금석문 ‘2.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에서” - 부산광역시 /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 53) 1750~ ?. 1775년(영조 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806년(순조 6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 부산금석문(2002. 12) 국역본 “수영구 금석문 ‘2.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에서” - 부산광역시 /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제단의 돌에 글을 새겨 교화시키는 비석을 세우고 여기에 시를 덧붙인다. 시를 지어 말한다.

의용(義勇)의 단을 쌓고 스물다섯 개의 비석을 세운다. 장산(黃山)의 양지이고 영해(英海)의 물가로다. <충렬지(忠烈誌)>를 본받아 <정방록(旌榜錄)>을 지었으니 동악(東岳) 이공(李公)을 사모하고 부사(府使) 오공(吳公)에게 감사드리네. 비로소 제수를 올리니 굳굳한 혼백 의지하리라. 높은 산 깊은 물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으리.

승정 기원후 네 번째 계축년(1853) 4월 일. 통정대부 전 승지 완산 이형하, 전 감동관<sup>54</sup> 첨정 백채현.

義勇諸人碑(義勇壇碑銘) 古人云 理平則爲公爲卿 世變則爲蛇爲豕爲獍爲梟者 十常八九焉 昔在宣廟 當龍蛇島夷之亂 東萊首受賊鋒 府鎮次第陷沒 殉節死義者 備載史乘 昭若日星 惟此水營將 不死於鼓 故裔從假命服斑斕 而言侏離者 良無足怪 雖有若爾人 奮忠殺賊 泯而無傳 是甚慨惜 亂後十七年 東岳李公 知府事 因士民狀採訪二十五人 七年水陸戰陣之蹟 以義勇二字 扁插諸家門首 錄以旌榜 時有餘生幾人 而必得其詳 厥後 吳公翰源 伯于府 鐫役以賞 撰文而褒 蓋忠義者 人心之同得乎天也 然此廿五人 以遐陬校列 誓死報國 憤恨帥臣之退陣 奮不顧身 慷慨從軍 一心金石 終始討賊 或殉身於鋒鏑之下 或迎新帥於中道 功勞積著 義烈凜然 疾風知勁草者 此之謂也 上年春 余以匪材 叩居是樞 先訪忠孝 始見旌榜錄 知有義勇諸人 瞿然於心 日 二公之褒義旌勇 宜無餘憾 而二公遺意 若有待於今日 則任其責者 豈非余歟 乃擇地築壇 豎碑勒名 因構齋舍 以春秋祀之 噫 此營 南微咽喉 嶺左要衝之地也 壇以祭 碑而記者 欲闡幽而勸後則 奚翅觀瞻咸聳而已 經費則勸助者多 故役不擾民 祭不弊官矣 咸願刻壇石 以樹風聲 而繫以詩 乃作詩曰 築義勇壇 立廿五碑 葺山之陽 英海之湄 擬忠烈誌 作旌榜錄 慕李東岳 感吳府伯 始薦芬苾 毅魄攸依 山高海深 永世無替 崇禎紀元 後癸丑 四月日 通政大夫 前承旨 完山 李亨夏 篆 監董官 僉正 白采綯.

이 비문에 나타나 있듯 ‘전 승지 이형하’가 언제 이 글을 썼는지는

54) 조선 시대 국가의 토목 공사나 서적 간행 따위의 특별한 사업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임명하는 임시직 벼슬-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확실치 않다. 다만 그가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후 경상  
우도병마절도사(慶尙右道兵馬節度使, 줄여서 ‘경상우병사’ 혹은 ‘병사’)로 부임  
한 뒤<sup>55)</sup> 1853년 초쯤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의용단’ 설치와 함께  
‘25의용’의 비를 세우는데 그 비명(碑銘)을 써주십사 부탁했다면, 그  
로서는 흔쾌히 25의용의 충의를 선양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그해  
4월 이전에 글을 써주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여기서 눈을 크게 떠야 하는 이유는, 경상우병사 이형하가 의용  
단비명을 쓰면서 ‘이기대’와 ‘두 기생의 순절’을 떠올렸을 것이라  
는 생각 때문이다. 왜냐면 그는 『내영지』 편찬 때 미처 마무리하  
지 못한 마음의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산천조’ 31개  
항목 중 유일하게 이기대의 유래를 ‘이기총운(二妓塚云)’이라 하여  
‘누가 그러더랴’라고 하는 식의 어정쩡한 꼬리표를 남긴 것이 그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소신인 “절의를 지킨 인물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 뜻”을 경상좌수사 장인식에게  
전했다.

전 · 후임 좌수사 양인은 두 기생이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  
을 던진 순절의 결과가 전장을 누빈 여느 장수의 전공에 비견(比肩)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무려 260여 년 전의 일인 데다, 공훈을 인정받은 바도 없

---

55) 『국역 내영지』 해제에는 이형하의 환적이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후  
경상우병사로 나타나 있다. 또 『조선왕조실록』 《철종실록 6권》, 철종 5년(1854) 8월  
21일 정사 1번째 기사에 ‘전 병사(兵使) 이형하’가 있다.

고, 천민의 신분이니 더욱 그랬다. 그래서 ‘신의 한 수’에 버금가는 묘안을 주고받은 것이 두 기생의 순절 장소인 너른바위 석벽에 이를 대신 ‘二妓臺’ 세 글자를 음각으로 새기자고 했다. 정말 그랬을까?

만약 경상좌수사 장인식 재임 시 이기대 석벽에 ‘세 글자’를 새겼다면, 1850년에 이임한 전임 좌수사 이형하와는 불과 3년 뒤에 그 일이 이뤄진 셈이 된다. 따라서 그 작업을 지휘했던 사람은 『내영지』 편찬에 힘을 쏟았던 이형하의 먼 친척과 책실일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임진왜란 이후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에 대하여 용호마을뿐만 아니라 경상좌수영 일대 여러 방리에서 전해지는 구전 내용을 누구보다 많이 수집했고, 그녀들의 사적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서다. 이렇게 추론해 놓고 보니 정말 그랬을 것 같다. 마치 마지막 남은 퍼즐 한 조각을 맞춘 듯하다.

그런데 문득 그 비어있던 퍼즐 한 조각을 한층 빛낼 수 있는 과제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의용제인비명’의 글씨와 『내영지』의 글씨, 이기대 석벽에 한자로 새겨 놓은 ‘二妓臺’ 세 글자의 글씨를 한군데 모아 놓고 서로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다. 물론 의용제인비명의 원문은 글자 마모가 심해서 읽을 수 없으므로 탁본을 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어렵게 수소문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마도 승정원 승지이자 경연참찬관을 지낸 이형하의 문무를 겸비한 듯한 높은 식견으로 보아 그 세 가지 과제물의 글씨체가 비슷하거나 혹은 같은

양상을 보여 새삼 검증이 필요한 또 다른 과제를 남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본다.

한편,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기대의 유래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기생설’도 ‘의기대설’도 아닌 ‘이기총설’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약 『내영지』가 일제 강점에서 벗어난 광복 즈음에 발견되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래도 늦게나마 『내영지』가 우리 앞에 나타나 모든 낭설과 이설을 뿌리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러니 ‘경상좌수사 이형하’ 아니 ‘통정대부 행절도사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형하’는 부산이 품고 있는 성지(聖地)의 하나요, 문화 원형인 이기대의 유래를 선명하게 밝혀준 분으로 우리 고장 남구의 향토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 3. 이기대 두 기생은 ‘프리랜서’였을까<sup>56)</sup>

이기대는 임진왜란 당시 수영성의 관기인 두 기생이 술 취한 왜장을 끌어안고 꽃다운 생을 마감한 전설이 서려 있다. 진주의 논개가 왜장을 끌어안고 남강에 투신해서 생을 마감한 이야기와 비슷하다. 하지만 이기대는 두 명의 기생이 등장하고 그 장소는 바닷가이다.

계다가 두 기생이 반농반어의 생활방식인 용호마을(현 용호동 성모병원 맞은편 일대)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바느질이라든지 물때

---

56) 부산남구신문 오페리언 ‘곽태옥의 바람고개 이야기II’에서 전문을 옮겼다.

헤아리는 법, 약초 효능 등을 가르쳤다는 점도 다르다. 또 하나는 두 기생의 이름과 나이다. 구전에 따르면 언니인 ‘남이’가 19살, 동생인 ‘경아’가 17살 때 수영성에 무혈입성한 왜군의 승전 자축 연에 끌려나가 최후를 맞는다.

여기서 두 가지 의문이 든다. 그녀들의 이름이 왠지 현대적인 어감으로 읽힌다. 또 관기라는 신분임에도 용호마을 민가에서 살았다. 무려 400여 년 전의 일이니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란 불가능하다. 굳이 참작할 만한 자료를 찾자면, 조선 시대 정3품의 한 당상관이 을사사화(1545년) 때 유배당한 뒤 끝내 해배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약 23년 동안의 유배 생활을 기록한 일기가 눈에 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25년여 전의 기록이다.

그는 유배지를 관장하는 목사나 판관, 사림 등이 주최하는 연회에 가끔 초대받았는데, 이 연회에 노응향, 장비, 탁문아, 옥지, 인금, 숙덕, 팔비, 언이 등의 기생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명월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생활을 시작한 황진이, 시인 매창과 홍랑, 이들도 임진왜란 직전에 비련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된 기생들이다. 이들의 이름에 비해 남이와 경아라는 이름은 왠지 여염집 규수의 이름처럼 느껴진다.

기생은 재산 축적도 가능했을까? 유몽인(1559~1623년)의 『어우야담』에 중종의 딸 정순옹주와 혼인한 송인(1516~1584년)과 어린 여종 ‘석개(石介)’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워낙 볼품없고 몹시 추하게 생긴 석개는 일은 안 하고 온종일 노래만 부르다 매를 맞기 일췌였다. 이런 석개의 재능을 알아본 송인이 정식으로 노래를 배우게 했고, 그 결과 근래 100년 동안 그녀만 한 명창이 없다는 칭송

까지 했다. 이후 석개는 권문세가의 연회에 다니며 명창의 진가를 발휘하고 금과 비단 등을 전두(纏頭)로 받았다. 날마다 전두가 쌓여서 석개는 마침내 부자가 되었고, 그녀의 딸 ‘옥생’도 어미 못지않은 명창이 되었다는 내용이다.

전두는 악공이나 기녀, 광대 등이 연회를 마치면 주최자가 주는 수고비다. 궁중이나 관청 등에서 연회가 끝나면 주는 연폐(宴幣)와 비슷하다. 이러한 품삯은 그날의 연회를 위해서 고생한 하인들에게도 주었는데, 이를 통칭해서 ‘행하(行下)’라고도 했다.

한때 양민계급의 여염집 아녀자도 교방에 적을 두고 관청의 공식 행사를 봉행했다고 한다. 또 집에서 손님을 맞아 기예를 펼쳐 보이고 행하를 받아 생업을 영위했다고도 하는데 관기에게 그런 투잡을 허용했을까 싶다. 그 어느 쪽이든 이기대의 전설 속 두 기생은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로 몸을 던진 의로운 꽃이 되기 전까지 용호마을에서 여느 여염집처럼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고 전해진다.

## 4. 문학작품 속의 ‘이기대(二妓臺)’

### 1) 가사(歌詞)에서

남양낙안(南陽落雁)<sup>57)</sup>

최한복

석양 비긴 양장로(羊腸路)로 신선대 찾아가니 신선이 안재재(安在哉)요,  
빈 대(臺) 홀로 뿐이로다. 오륙도 곁에 두고 경치 쫓아 내려가니, 절벽 거  
꾸러진 곳이 창해가 지척이라, 석벽에 새긴 글자, 의기대(義妓臺)가 여기  
로다. 의기의 천추 원한 망경대(望景臺) 전 백마탄(白馬灘)과 박모(薄暮)에  
울어 있다.

새남(塞南) 깊은 밤에 오는 이 기러기냐. 기다리어 반가운 소식 누구에  
게 전해주고 외로이 날아오나. 월백사백(月白沙白) 여역백(汝亦白)하니  
시비흑백(是非黑白) 오부지(吾不知)라, 삼경이 깊었는데 삼삼오오 짝을  
지어 행렬 지어 날라드니 남양낙안이 여기로다.

---

57) 앞의 '각주 26)'의 내용과 같음

## 2) 시(詩)에서

### 석벽루(石壁淚)<sup>58)</sup>

곽태욱

장자산 넘어올제 창해만 보이더니  
너른바위 내려서자 오륙도가 눈앞이네  
굴섬<sup>59)</sup>의 고송 하나 백구를 벗 삼다가  
사리 지난 조금 때사 얼굴 내민 지도(蠍島)<sup>60)</sup>에게  
남촌성루(南村城樓)<sup>61)</sup> 바라보며 망배하듯 설렷단테  
어이하여 내 그리움 예서 끊겨 통한인가.

넓디넓은 암반 위에 가얏고 울어 열 때  
왜장들의 주지육림 꽃 두 송이 흘날렸네  
이 밤 다해 탁마석벽 이기대(二妓臺)라 새겨 놓고  
여명 박명 피어날 때 자골(字擗)<sup>62)</sup> 주사(朱砂)<sup>63)</sup> 입히나니

---

58) 장편소설 『소설 이기대, 두 여인 그렇게 지다』, 곽태욱 著, 2014. 부산: 오륙도신문사.  
이 책의 '50'장 P283에서 전문을 옮겨옴.

59) 오륙도의 여섯 섬(방패섬·술섬·수리섬·송곳섬·굴섬·등대섬) 가운데 제일 높은 섬.

60) 거미섬. 경상도 사투리로 '거무섬'이라고도 함. 국토정보지리원이 2011년 명명한 정식 명칭은 '나암(那岩)'. 오륙도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m 후방 남서쪽에 위치. 해수면이 가장 낮은 소조(小潮)가 되면 물밑에 약간 잠긴 상태로 모습을 드러낸다. 음력 2월에 가장 많이 드러나므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

61) 임진왜란 당시 동래부 남촌면에 소재한 경상좌수영성의 망루.

62) 파낸 글자의 골.

63) 경면주사(鏡面朱砂)의 출임말. 자줏빛(주홍색 또는 적갈색)을 나타내는 천연광물질

길손이 하이고(何以故)면 원한천추 석벽루(石壁淚)오  
애고애야(哀苦哀也) 애별리고(愛別離苦) 단장에도 에는구나.

### 3) 수필(隨筆)에서

#### 장로가 기생 무덤을 찾다<sup>64)</sup>

##### 공기화

이기대는 초등학교 때부터 여름이면 떡 감으러 가거나 낚시하던 곳이기에 퍽 친숙하였다. 그곳의 넓은 바위, 해식동굴(海蝕洞窟), 동광(銅鑛)에는 금빛 나는 돌이 있었고, 철마다 다양한 야생화가 피던 그곳의 바닷가를 동경하며 빨리 여름이 오기를 기다렸다. 몇 해 전 봄날에 부산노인문화센터의 요청으로 갈맷길 가이드 지원자들과 함께 이기대 수변 산책로를 소풍 간 기분으로 걸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반하였다.

오륙도 앞의 해오름공원 정자에서 천천히 위로 오르다가 대나무숲 사이의 일본군 포진지에 안내하니, 동행인들은 역사의 현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농바위, 박골새, 치마바위를 거쳐 송림 샅길을 따라 파도소리를

---

안료(顔料). 색이 쉽게 바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인주(印朱)의 재료로 많이 쓰인다. 다르게는 '경명주사'라고도 한다.

64) 공기화 수필집 『뒷모습을 그리다』, 2015. 부산. 세종출판사. 이 책 '05 길을 따라, 시간을 찾아'(P231)에서 전문을 옮겨옴.

들으며 낭끝과 이기대의 전설이 깃든 너른바위까지 왔다. 어릴 때부터 보아온 곳이지만, 이제 보니 이기대의 아름다움이 더 새롭다.

어찌하여 부산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잘 가꾸지 않고 그냥 두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이기대와 별 관련이 없는 시비(詩碑) 몇을 감상하며 투덜대다가, 낙시의 명소인 너른바위의 뒤편의 절벽에 이기대(二妓臺)라는 붉은 각자(刻字)를 보니, 이곳에서 죽은 두 기생의 한이 새겨진 듯하다.

이기대에 대한 문헌이라고 해야 <동래영지(東萊營誌)>가 유일하므로, 대학도서관에 가서 서가를 뒤졌으나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역사 전공을 한 교수의 도움으로 그에게 <내영지(萊營誌)>를 빌려서 읽으니, '산천조(山川條)'에 2기의 큰 기생의 무덤이 있어서 이기대라고 불렀다는 유래를 찾을 수 있었다. 두 기생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다 죽었으며,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특히 신분의 구분이 뚜렷했던 조선조에 두 기생의 무덤이 크게 조성되었던 사연은 알 길이 없다. 1993년에 박지홍 교수가 부산일보 지상에 이곳의 기생이 '좌수사와 놀았던 기생인가, 의기(義妓)인가?'에 대해서 거론한 후, TV에서까지 잠시동안 거론되었으나 흐지부지된 지 거의 20년이 되었다.

왜 기생의 무덤을 크게 조성하였을까? 전설대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에 의해 좌수영이 초토화되어 왜군 수중에 들어가자, 왜장이 배설한 연회에 가서 만취한 왜장의 허리를 껴안고 너른바위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순사한 곳이라고 하여 의기대(義妓臺)라고 불렀다

는 향토사학자 최한복의 구전이 풀리지 않고 맴돌았다. 내영지에 기술된 다빈치 코드처럼 열쇠가 되어 두 기생의 전설을 풀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으랴.

이기대에 오기만 하면, 420여 년 전에 순절한 두 기생을 생각하며 걸었다. 왜군에게 끌려가서 피지도 못한 꽃으로 저버렸던 의로운 두 기생의 무덤 위치를 알고 싶었다. 160여 년 전인 1850년에 저술된 <내영지>에 기술된 것처럼 규모가 큰 두 기생의 묘(塚)가 아직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봄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남구지에 이기대에 관한 칼럼을 쓰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가, 병실에서 우연히 80년 전에 두 기생을 위로하려고 충무동 기생들에게 의기의 무덤을 안내했던 왕기세(王基世)의 손자인 왕정문 씨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땀이 상의를 젖게 한 불별더위가 남아 있는 9월 초에 그를 따라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 입구에서 셋길로 나아가다가, 잡목 숲을 헤치며 불법으로 개간한 밭을 가로질러 산길을 올랐다. 자세히 살펴해보지 않으면, 무덤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잡목과 잡초에 묻혀 황폐화 된 두 무덤이 있었다. 이 무덤들은 한눈에 보아도 동시대에 동일한 양식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묘의 위치는 좌우가 아니라 아래, 위로 있었다. 무덤의 크기를 측정하려 했으나, 산뽕나무, 참나무, 도토리, 산딸기, 칙냉쿨이 뒤엉켜 무덤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다. 나뭇가지를 젖혀가며 겨우 무덤의 크기를 측정하였더니, 위의 묘의 직경이 6.1m, 아래의 묘는 6.3m로 꽤 큰 규모의 무덤이었다.

두 기생의 무덤을 찾았다는 흥분을 가라앉힌 후, 무덤의 상태와

이기대의 내용을 정리하여 남구청장과 남구의 김무성, 김정훈 국회의원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두 기생의 의로운 행적을 알려고 하였으나, 타임머신을 타고 사백 년 이전에 이 무덤을 만든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한다면 모를까, 이 사실을 증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무리 전란 중이라 할지라도 기녀들의 공적을 한 줄이라도 기록해 두었더라면, 그들이 순절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공적은 인정받아야 옳을 것이다.

두 기생에 대한 이미지가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리 이 고장의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살펴본다고 하지만, 세인들은 교회의 장로가 두 기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무덤을 찾았던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할 것이다. 아들과 함께 무덤을 찾아 슬픈 단막극의 주인공인 두 기생의 무덤에 장미 꽃다발을 두고 왔다. 인생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두 기생 하루만의 의로운 단막극의 끝자락이 정리되지 않아 사백 년이 지나도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는 아름다운 전설로 새롭게 쓰인다 하더라도 기쁘든 슬프든 간에 막을 내려야 또 다른 단막극의 막이 오르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서울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잠시 두 기생에게 정신이 팔렸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내 말을 믿지 않았던지, ‘야 너 요즘 신기생전 드라마를 보더니, 이상하게 된 게 아냐?’라는 답신이 바로 들어왔다. 그의 문자로 보아, 내가 기생과 노닥거릴 만한 위인이 못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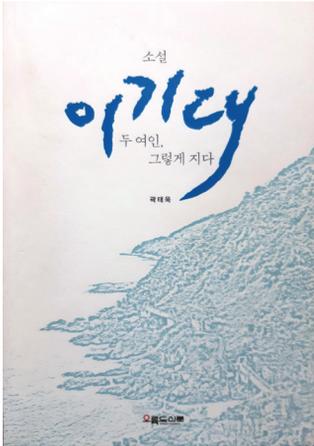
1910년부터 1939년까지 부산 지역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았던 메켄지 선교사에 대한 글을 쓸 예정이어서 그에게 ‘앞으로 한

센병 환자에게 미쳐야 할 것 같다.’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뭘라꼬?’라는 답신만 닿았다. 그에게 자세한 말을 았았지만, 용호동에는 지난 60년간 문둥이라고 불리었던 한센병 환자의 슬픔이 있는 곳이었다. 부산 남구의 향토사를 쓰면서 메켄지 선교사에 대한 글을 보충하려고 한다. 이러다가 남들이 나를 ‘인디아나 공(Indiana Kong)’이라 하면 어찌지?

이 일을 하기 전에 우선 좀 쉬어야겠다. 로킹 চে어에 앉아 눈을 감았더니, 바다 끝에서 큰 무대가 떠올라왔다. 전혀 낮설지 않은 400여 년 전의 두 여성 주인공이 천주교인부대 대장인 소서행장(小西行長)과 불교군대를 이끈 가등청정(加藤清正)에게 “야 이놈들아, 네놈들은 독실한 종교인이라면서 어찌하여 조선을 도적질하고, 재물을 탐해 사람을 죽이고 아녀자를 겁탈했느냐? 어찌 우리들을 지금까지 어둠 속에 가두어 두다니. 에이 몹쓸 놈들!”이라고 엄하게 꾸짖으니, 두 왜장들은 투구를 벗고 무릎을 꿇었다.

한 기녀가 “네 주군에게 고하여라. 잔나비같이 생긴 네 놈 후손들이 남의 나라에 뇌염모기처럼 날아가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라며 이웃의 속을 뒤집다가, 정신이상의 평화만 부르짖으며 과거에 이웃을 괴롭힌 죄를 이실직고(以實直告)하기보다 오리발을 내놓고 오히려 동양의 발전에 공헌했다며 큰소리를 치는 철면피들을 보니 한심하도다. 하늘이여!”라고 말하자 대단원의 막이 서서히 내렸다. 상상의 무대이지만, 이 통쾌한 장면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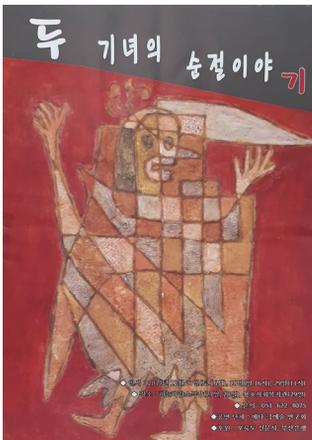
#### 4) 소설(小說)에서



이기대의 유래와 관련하여 임진왜란 발발 직전부터 오늘날까지 약 400여 년 이상 남구 지역에 전해지던 구전을 최초로 잘 정리하여 가상과 현실을 오가며 쓴 것으로 평가받는 소설작품이다.

사진⑥ / 제공 : 곽태욱 향토사연구가 ·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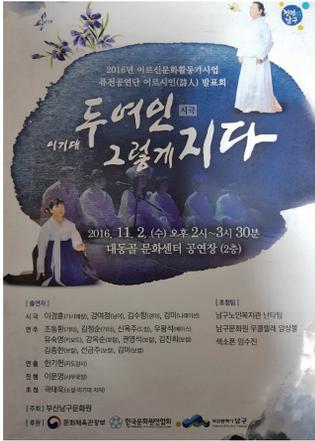
#### 5) 연극(演劇)에서



장편소설 『소설 이기대, 두 여인 그렇게 지다』(곽태욱 著)의 원작을 바탕으로 각색한 대본을 통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하늘바람 소극장〉 등에서 3일간 공연한 이 연극은 현역 연극배우를 위시한 연극 동호회 회원들이 3개월 이상 연습한 기량을 무대에 펼치면서 수준 높은 열연과 함께 관객 만석의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

사진⑦ / 제공 : 곽태욱 향토사연구가 · 소설가

## 6) 시극(詩劇)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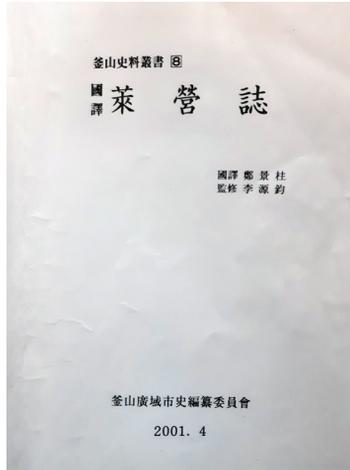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대동골문화센터에서 막을 올린 시극(詩劇) '이시대, 두 여인 그렇게 지다'는 남구 거주 시니어 단원으로 이루어진 연극동호회 회원들과 전문 연주가 등이 출연, 왜장을 끌어안고 순절한 두 기생의 천주 한을 읊으며, 한편으로는 흥겨운 트로트와 색소폰 연주, 난타 공연 등의 음악이 가미되는 열연을 통하여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 제공 : 광태욱 향토사연구가·소설가

## 5. 이기총(二妓塚)을 역사에 등장시킨 『내영지(萊營誌)』

이기대의 유래를 문헌에서 처음 밝혀준 『내영지(萊營誌)』 원본은 현재 일본의 천리대학 도서관(天理大學 圖書館) 이마니시문고(今西文庫)에 소장돼 있다. 조선 후기인 1850년에 편찬된 경상좌수영의 지리지(地理誌)이자 진영지(鎭營誌)이고 읍지(邑誌)로 평가받는 이 책이 언제 일본으로 흘러간 것일까? 그것은 일제 강점기 경성제국 대학(京城帝國大學)의 조선사(朝鮮史) 교수였던 이마니시류(今西龍, 1875~1932)가 조선과 관련된 고서 1530여종, 탁본 338종 등 도합 1,868종<sup>65)</sup>에 달하는 문화재를 수집해 가져갈 때 포함돼 있었다.

65)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천리대학 천리도서관 소장 한국본(국립문화재연구소)-발간사 참고.



사진⑩ / 출처: 『국역 내영지』 표지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5년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을 발간<sup>66)</sup>했다. 이 목록 중 『내영지』는 사부(史部)<sup>67)</sup> 지리류(地理流)의 방지(方志)에 ‘동래영지(東萊營誌)’라는 제목으로 등록되어 있다. 표제는 ‘내영지(萊營誌)’이고, 부록은 ‘선생안(先生案)’이다. 서문은 경술년(철종6. 1850) 가을(음력 9월) 상순에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이형하(李亨夏)가 기록했다고 하고 있다. 철종 즉위년이 기유년(己酉年)인 1849년이고, 철종 원년이 경술년(庚戌年)인 1850년이니 서문을 ‘경술년(철종6. 1850)’으로 기록한 것은 옳기로 보인다.

66)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연구지식포털 > 미술 > 원문정보 > 조사연구보고서(PDF 파일) >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소장 한국본. 초판/517쪽/265cm.

67) 앞의 ‘각주 65)~각주 66)’ 참고.

이마니시류가 일본으로 가져간 『내영지』 원본이 일본 천리대학교 도서관에 등록된 시기는 쇼와(昭和)<sup>68)</sup> 42년 9월 26일이다. 일본 연호 대조표에서 찾아보면 1967년에 등록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마니시류가 죽은 1932년 이후 유족에 의하여 30여 년 넘게 보관되다가 천리대학에 기증한 것은 아닐까 추정된다. 부산시는 일본 천리대학에서 『내영지』 원본을 빌려와 우리말로 번역, 2001년 4월 30일 『국역 내영지(國譯 萊營誌)』를 발행하여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이 책의 사료적(史料的) 가치가 알려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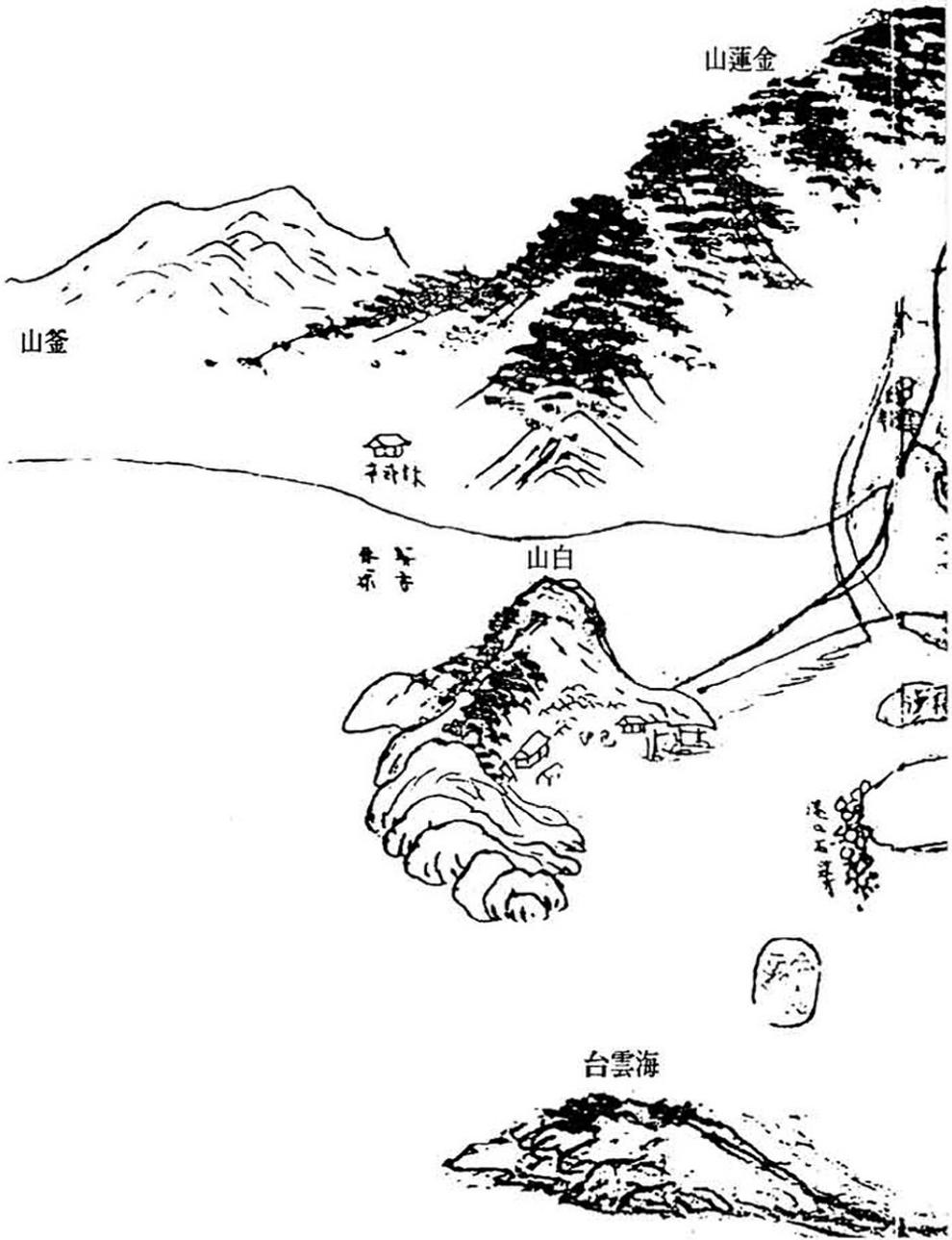
『국역 내영지』의 구성은 해제(解題), 국역(國譯), 원문(原文) 세 부분으로 돼 있다. 집필위원으로는 자료해제 윤용출(부산대학교 교수), 자료번역 정경주(경성대학교 교수), 감수 이원균(부경대학교 교수) 세 분이 맡았다. 편집위원으로는 이원균(부경대학교 교수), 최해균(향토사학자), 강대민(경성대학교 교수), 이종원(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장), 홍연지(부산광역시 시사편찬상임위원) 다섯 분이 맡았다.

『내영지』 원문은 첫 장에 ‘내영지도(萊營地圖)’라는 제목의 지도가 붙어 있다. 좌수영인 ‘내영(萊營)’을 중심에 두고 전방의 먼 동쪽으로 해운대와 간비오(干飛鳥) 봉수대가 표시돼 있고, 가까운 동쪽으로는 백산(白山)과 장산(長山)을, 정남쪽은 부산(釜山)<sup>69)</sup>, 후방 서쪽으로는 금련산(金蓮山)과 배산(盃山)이 배치된 지도이다. 좌수영 성 밖

68) 천황제인 일본의 천황이 바뀔 때마다 새로 사용하는 연호 중 하나. 기간은 1926년~1989년.

69) 첨사영(僉使營)인 부산진성(釜山鎭城)을 가리킨 것으로 보임.

地 圖



菜 營



山孟

前本



山霞

燧烽飛干



전면에 보이는 숲 같은 그림은 함선의 정박·수리를 위한 선소(船所)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하지 않다.

내영지도(萊營地圖)에 이어 『내영지』 서문인 ‘내영지서(萊營誌序)’라는 제목 아래에는 낙관이 찍혀있다. 서문 끝에는 ‘통정대부 행절도사 승정원 우부승지겸 경연참찬관’이라는 관직명이 선명하다. 이로 보면 경연참찬관 이형하의 낙관인 듯한데, 선명하지 않다. 서문 다음은 ‘목록’이고, 이어 좌수영성 변천 과정을 밝힌 ‘건치연혁(建置沿革)’과, 그다음 관직(官職)을 설명하고, 그다음 경상좌수영의 여러 가지 ‘영명(營名)’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좌수영의 영명은 ‘동래수영(東萊水營)’, ‘영좌수영(嶺左水營)’, ‘유영(柳營)’ 세 가지로 적혀 있다. 이 중 동래수영을 줄여서 ‘내영(萊營)’이라 불렀다. 그래서 원본의 표제도 ‘내영지(萊營誌)’로 되어있다. ‘동래영지(東萊營誌)’라는 제목은 ‘건치연혁(建置沿革)’을 설명할 때 한 번 보인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책의 제목은 ‘동래영지’보다는 원래 표제인 ‘내영지’로 읽고 써야 무분별하게 혼용되는 혼란을 줄이고 정확한 이 문헌의 이름이 사용될 것이다.

서문에 이어서 목록은 건치연혁(建置沿革), 관직(官職), 영명(營名), 주사속관(舟師屬官), 성지(城池), 영저호수(營底戶數)<sup>70)</sup>, 관방(關防), 진보(鎭堡), 전함(戰艦), 봉수(烽燧), 봉산(封山), 변정(邊情), 송헌(松憲), 형승(形

---

70) 경상좌수영 본영이 위치한 곳에 있는 마을의 호수.

勝), 목장(牧場), 역원(譯院), 말참(驛站), 도로(道路), 교량(橋梁) 시장(市場), 어염(漁鹽), 토산(土産), 진공(進貢), 방물(方物), 전문(箋文), 사전(祀典), 군무(軍務), 방헌(防憲), 풍속(風俗), 성씨(成氏), 환적(宦績), 과거(科擧), 인물(人物), 궁실(宮室), 공해(公廡), 창고(倉庫), 산천(山川), 숲(藪), 도서(島嶼), 제안(堤堰), 방리(坊里)<sup>71)</sup>, 단묘(壇廟), 총묘(塚墓), 불우(佛宇), 고적(古蹟), 비갈(碑碣), 누정(樓亭), 암석(巖石), 기문(記文), 제영(題詠), 선생안(先生案)의 총 51개 조(條)로 구성돼 있다.

『내영지』<sup>72)</sup> 목록에서 짐작되는 몇 가지 특징 중 ‘군무조(軍務條)’에 이르면 해안 방어와 국경 강화 임무를 맡은 당시의 경상좌수영 수군 편제와 운영, 수조(水操)<sup>73)</sup>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나열해 놓은 점이 두드러진다. 특히 본영인 좌수영을 중심으로 하는 본진(本鎭), 첨사가 지휘하는 거진(巨鎭), 만호가 지휘하는 제진(諸鎭)의 삼진(三鎭) 체제 수군 전력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고, 수군 훈련 결과를 고과 성적으로 작성해서 장계로 올리는 등의 실무적인 내용도 있다.

또 과거 임진년 전란에 대한 여러 좌수사의 결의와 수영성 관련 개수(改修) 및 누각의 창건 등에 따른 소회를 적은 기문(記文)에 이어 감군은사(感君恩詞), 나라 사랑, 경승지 감상 등 다방면을 노래한 시(詩) 311편과 성지조(城池條)에서 3편, 도서조(島嶼條)에서 1편

71) 『내영지』에는 좌수영 영내(營內)를 포함한 방리 24개 마을이 실려 있다.

72) 『국역 내영지』를 이름.

73) 당시의 수군 군사 훈련.

등 총 315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외에도 지명에 이어, 왜인 통제 시설인 관방(關防), 봉수, 목장, 도로, 토산물, 제언(수리시설), 불우(절), 고적, 비갈(碑碣) 등 다방면의 정보가 수록돼 있다.

『내영지』<sup>74)</sup> 마지막 장은 문적(文籍)이 사라지고 없는 경상좌수사 박홍 이전의 좌수사는 이름만 나열돼 있고, 임진란 직후부터 좌수사 이형하 자신에 이르기까지 역대 좌수사 명단을 정리한 ‘선생안(先生案)’이 있다. 이 선생안은 경상좌수사 도입과 이임 등에 따른 정보를 단편적으로나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이 기록만으로도 경상좌수영의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내영지』 편찬자인 통정대부 행절도사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형하는 부산 지역과 인연이 깊다. 그 인연을 『국역 내영지』의 해제(解題)<sup>75)</sup>에 기초하여 재구성해 보면, 그는 현종 8년(1842) 평안남도 개천군수(价川郡守)를 지내고, 현종 14년(1848) 다대포첨사에서 승정원으로 갔다가 조선 25대 철종 즉위년(1849)에 임금의 교지를 받아 경상좌수사로 부임해 임기만료 후인 철종 원년(1850) 다시 승정원으로 돌아갔다. 그 외에도 그의 자취는 오늘날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경상좌수영 성지의 25의용단(義勇團) 비문에도 남아 있다.

---

74) 『국역 내영지』를 이룸.

75) 윤용출 부산대학교 교수에 의함.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철종 4년(1853) 경상우병사(慶尙右兵使)를 지낸 이형하는 철종 9년(1858) 함경남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철종 10년(1859)에는 함경도 북청(北靑)에 주둔한 병영(兵營)의 주장인 남도병마절도사(南道兵馬節度使, 줄여서 '남병사')를 지냈다. 그의 맏형 이원하는 동생 이형하보다 5년 앞선 헌종 10년(1844) 경상좌수사의 소임을 마친다. 그 이후 전라도 병마절도사, 평안도 영변부사(寧邊府使), 우변포도대장(右邊捕盜大將), 배왕대장(陪王大將)<sup>76</sup>,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 평안도 병마절도사, 함경남도 병마절도사의 외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형하의 환적(宦績)<sup>77</sup>은 자신의 할아버지 음덕에 의하여 출발한다. 『국역 내영지』와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찾은 관련 자료를 재구성해서 그의 가족 관계와 벼슬살이의 자취를 대략 살펴보면<sup>78</sup>, 그의 할아버지는 순조 32년(1832) 포도대장을 지낸 이복연(李復淵)이고, 그의 외조부와 장인도 고위 무관을 지낸 것으로 나온다.

그의 부친도 정3품 당하관 어모장군(禦侮將軍) 겸 행오위도총부(行五衛都摠府)에서 실무 담당관인 종4품의 '경력(經歷)' 벼슬을 한 기

76) 국장(國葬)에서 '행렬의 호위를 맡은 대장'-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중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孝顯王后國葬都監儀軌)』 제2책에 수록된 반차도(班次圖) 참고.

77) 벼슬살이의 자취(행적).

78) 『국역 내영지』의 해제 내용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등재된 '이형하(李亨夏)' 관련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하여 썼다.

록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그는 친가는 물론 외가와 처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무장(武將) 가문의 후손인데, 이러한 내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이야기를 돌려 그가 무관의 길을 들어서는 계기부터 이어가면 다음과 같다.

그는 무장 가문의 후손 중에서 인재를 특채하는 음관(蔭官)<sup>79)</sup> 자제(子弟)로, 종9품 무관인 초관(哨官)으로 출사하였다. 그의 나이 25살 때의 일이나, 출사 당시 그의 부친은 이미 작고하고 어머니 슬하에 있었다는 ‘자시하(慈侍下)’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당시 그의 할아버지에 의한 천거가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출사한 뒤 얼마간 초급장교로 무관 생활에 익숙해진 뒤 어가(御駕) 앞을 훈도(訓導)하는 선전관(宣傳官)을 지내기도 한다. 그의 마지막 환적은 철종 13년(1862년) 전국 팔도의 지방관, 즉 팔도의 수령(守令) 명단을 기록한 선생안 『팔도총록(八道總錄)』에 경기도 죽산부사(竹山府使)로 이름이 보인다.

그의 형제 관계는 만형 이원하(李元夏)와 중형 이정하(李貞夏)가 있다. 그의 중형에 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보았으나 명확하지 않아 더 많은 사료를 찾는 노력이 요구된다. 반면 그의 만형 이원하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동생 이형하가 앞으로 역임하게 될 관직을 먼저 거쳐가는 우연 같은 환적을 보인다. 또 형제가 모두 외관직(外官職)인 절도사의 직을 거치는 공통점

---

79) 공신(功臣)의 후손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발탁돼 벼슬길에 나아가는 인제.

이 있는데, 동생 이형하는 경관직(京官職)인 승정원 승지의 직을 두 번씩이나 지낸 점이 이채롭다.

조선 시대의 승정원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곳이다. 승정원 우부승지 이형하는 경연참찬관을 겸했다. 경연참찬관은 임금에게 유학의 경서(經書)와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임무뿐만 아니라 학문 연구와 역사 편찬 등의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러한 사실들로 봐서 우부승지가 담당할 형조(刑曹)<sup>80</sup>의 직은 그가 무반(武班)이라는 점에서 당연해 보이지만, 겸직인 경연참찬관은 다소 의외이다. 다만 그의 환적을 보면 그리 낮은 관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으로 도입한 이후 『내영지』 서문을 써서 편찬 사업을 마무리했다. 전임자인 경상좌수영의 수군 편제와 훈련 등 수군 운영 전반부터 읍지의 영역과 지리지 영역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매우 소상하게 기록한 『내영지』는 임금의 경연장에 오를 수도 있었다. 또 그 자신이 때로는 신료들과 함께, 때로는 독대를 하면서 임금 앞에서 정사를 논하는 당상관으로 옮겨갔으니, 『내영지』 51개 조(條)를 다듬고 또 다듬어 어느 한 조라도 소홀히 할 수 없었음은 자명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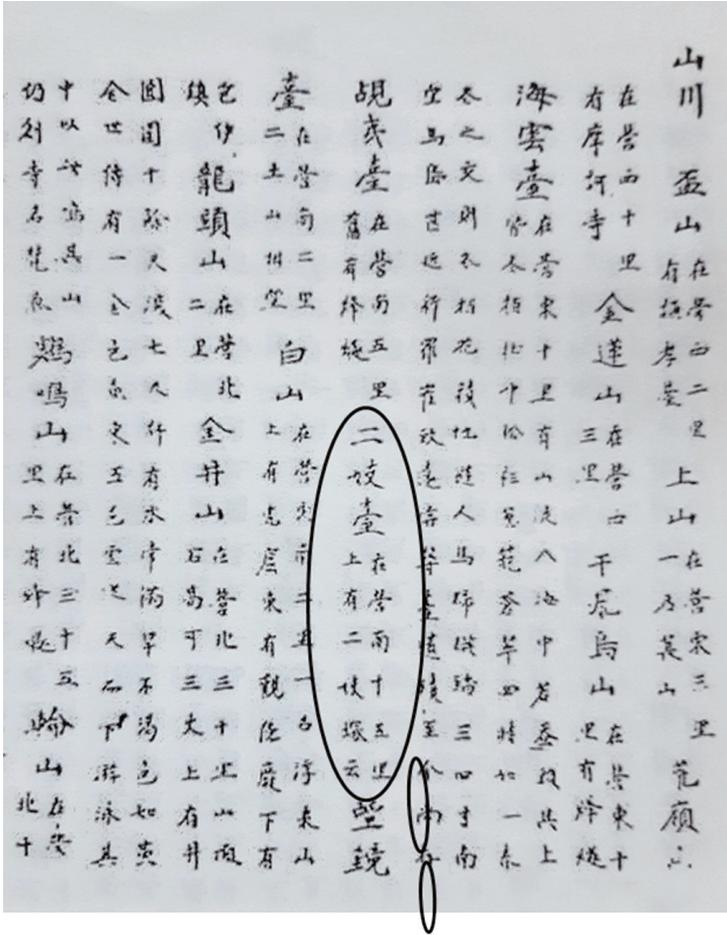
한편, 『내영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략적이거나 이렇게

---

80) 승정원에는 정3품 당상관인 6인의 승지가 있다. 도승지는 이조, 좌승지는 호조, 우승지는 예조, 좌부승지는 병조, 우부승지는 형조, 동부승지는 공조를 맡았다. - 『경국대전(經國大典)』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소개하는 이유가 자못 궁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이기대의 유래를 역사 전면에 드러낸 엄청난 무게감 때문이다. 비록 『내영지』에 나타난 이기대의 유래가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 상유 이기총운(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塚云)”이라는 열다섯 글자에 지나지 않으나, 역사 현장으로서의 무게감은 이기대와 오륙도를 품고 있는 용호만 바닷물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합친 무게보다 더 무거운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내영지』 산천조<sup>81)</sup>



이기대(二妓臺) 관련 기사

“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塚云”

사진② / 출처: 『국역 내영지』 원문편

81) 『국역 내영지』 원문편(萊營誌 / 22 / 367).



# 2

## 대환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서막







## 2장 대환란 ‘임진왜란(壬辰倭亂)’의 서막

### 1. 평온한 용호마을의 단상 하나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직전 용호마을에서 살고 있던 두 기생의 일상생활이 구전된 내용이 있다. 이를 정리한 소설작품<sup>82)</sup>에서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잉석은 불현듯 저 먼 수평선을 향해 무한정 노를 저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래도록 자매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론 그만이지 싶었다. 막 그 흐뭇한 환상에 잠기려는데, 경아가 손톱만 한 새끼 참게에게 물려 호들갑스럽게 남이를 불렀다.

“언니, 언니! 애 좀 봐. 내 손가락을 물었어!”

그러면서 꼼지락거리는 참게를 남이 앞에 불쑥 디밀었다. 남이가 어머니! 하면서 얼른 잉석의 어깨를 빌리며 얼굴을 숨겼다. 향긋한 분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잉석은 난생 처음 여자의 분 냄새

---

82) 앞의 '각주 58)과 같은 책의 '10'장 끝부분에서 발췌하였다.

를 맡고 그럴 수 없는 황홀감에 빠진 것 같아 시선 둘 곳이 마땅찮았다. 문득 감칠 맛 나는 명계라도 각시들에게 얻어 먹인다면 황홀한 무안함이 좁은 가셔질 것 같았다. 하지만 물질하는 아낙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오늘은 물질 대신 구덕<sup>83)</sup>에 모여 온갖 이야기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내는 모양이었다.



기암 절경 속의 '구덕'  
 사진②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 2. 『국역 내영지』의 ‘풍속조(風俗條)’와 용호마을

『국역 내영지』의 ‘풍속조(風俗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

83) 현재 용호동 오륙도 관광안내소 바로 아래(전방 10시 방향)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사진 참고)의 장소를 가리킴. 당시 이곳에서 물질하는 아낙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짬을 내어 아기에게 젖을 물린 곳으로 전해짐.

“(영저와 방리의 백성들은)<sup>84)</sup> 소박하고 나약하며 관가의 명령을 두려워하여 준수한다. 농사에 힘쓰고 문무(文武)에 익숙하여 숭상하며, 결혼과 상례에 서로 돕는 정이 있고, 환난에 서로 구제하는 의리가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상좌수영의 영저와 방리의 백성들에 관한 성향을 승지 이형하의 족인과 책실이 다방면으로 수집한 자료를 취사한 결과일 것이고, 그 주된 대상은 경상좌수영 영내·외 남촌면 일대 24개 마을의 영저와 방리 백성들을 표본으로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수집한 자료는 『내영지』를 편찬했던 1850년 직전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 사람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생긴 여러 마을 백성들의 성향이 면면히 이어진 것으로 봐야 옳을 것이다.

이와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구전을 정리한 소설작품에서 경상좌수영 24개 영저와 방리 중의 하나인 용호마을<sup>85)</sup>의 생활상을 보면 ‘풍속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당시 백성들의 성향이 유사하다는 것을 아래 내용에서<sup>86)</sup> 짐작할 수 있다.

“……좌수영성내 용호만의 한 마을에서 소금을 만든다는 소문이 어디까지 나 있었는지 몰라도, 소금장수 외엔 외부 사람이 소금을 사러 마을을 들락거리는 횃수는 그리 빈번하지 않았다. 소금

---

84) 필자가 임의로 주어를 넣었다.

85) 『내영지』 ‘방리조(坊里條)’의 용호동 전신인 ‘분포리(盆浦里)’를 일컬음. 앞의 ‘각주 17’) 참고.

86)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04’장 끝부분에서 발췌.

생산이 주업이 아니었던 탓도 있었고, 남아도는 소금도 없었으며, 거래량도 소량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소금에 의존해 생계를 영위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바닷가에 나가면 먹을거리들이 널려 있었고, 손바닥만 한 밭떼기라도 콩이나 수수를 키우면서 소채 작물을 거두면 서로 나눠 먹기도 했으니, 밭에서 얻는 것과 바닷가에서 얻는 것만으로도 생계를 영위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그 때문에 웬만한 흉년에도 마을 인심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대로였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곤궁하지 않은 날들의 단조로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평온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위의 내용은 구전을 바탕으로 묘사한 내용이다. 이 구전 내용이 임진왜란 발발 직전의 용호마을 풍경과 임진왜란 258년 뒤 『내영지』를 편찬할 때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실생활 면을 비교해 보면 괴리감이 들 만큼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 아니 풍습이 유사하다. 이러한 점에서 구전의 진실성에 신뢰를 부여할 만도 하다.

또, ‘풍속조’에서 “환난에 서로 구제하는 의리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웃 간의 물질적인 도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웃의 불행을 마치 나의 불행처럼 애태우며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는 의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 내용이<sup>87)</sup> 그에

---

87)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43’장 전반부에서 발췌하였다.

해당할 것이다.

……쇄환사(刷還使)<sup>88)</sup>가 조선으로 돌아올 때는 조선군 포로와 납치됐던 조선 사람들이 상당수 귀환했다. 그동안 품문조차 들리지 않았던 문 씨 아내도 이때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문 씨 아내의 귀환을 두고 한동안 잔치하는 기분으로 지냈다. 하지만 문 씨 아내는 마을 사람들의 들뜬 기분과는 달리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줄곧 눈물로만 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남편은 돌아오지 못하고 혼자만 돌아왔다는 죄책감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을 아낙들은 그런 문 씨 아내를 날마다 위로했다. 방문은 쉬 열리지 않았다. 그래도 마실 나온 아낙들까지 가세해 마루를 가득 채우곤 했다. 문 씨 아내가 조금씩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반년쯤 지난 뒤부터였다. 일본에 끌려간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염전 밭을 일구는 강제노역에 시달렸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층층이 눈물로 쌓은 문 씨 내외의 고생담에 모두들 애통한 한숨만 뻗었다. 문 씨 아내는 남편 이야기에 접어들자 한동안 덤덤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더니 애써 참고 있던 눈물단지를 깨트렸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끝에 겨우 안정을 찾은 문 씨 아내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말밖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었다. 강제노역에 시달리던 조선 사람들에게 배식된 식사량은 하루에 주먹밥 하나가 전부였다. 때문에 물배를 채우기 일쑤였고, 굶주린

---

88) 정식 명칭은 ‘회답겸쇄환사(回答兼刷還使)’.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 秀吉)가 죽은 뒤인 1607년(선조 40)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가 에도(江戸) 시대를 열고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서둘러 요청, 조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사신을 파견할 때 ‘통신사’ 대신 사용한 명칭-〈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참고

고통을 이겨내려고 그날 일과가 끝나면 먹을거리를 찾아 산과 바다를 헤맸다. 하지만, 수용소가 있는 지역의 외곽엔 늘 왜군 감시병이 보초를 서고 있어서 마음 놓고 돌아다니지도 못했다. 자연 몸과 마음이 지치면서 사람들은 하나둘 병고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문 씨도 굶주림에 지쳐 그만 병이 들고 말았다. 영원히 객귀가 된 것은 쇠환사가 일본으로 건너와 한일 양국 간의 국교 강화문제를 처음으로 꺼냈던 기유년(己酉年, 1609) 늦가을 무렵이었다.

### 3. 왜군 대함대 출현과 피난의 끝

#### 1) 왜군 대함대가 바다를 메웠다<sup>89)</sup>

마을은 별집을 들쭉서 놓은 것처럼 어수선했다. 건너편 절영도 앞바다에 정박하기 시작한 왜군 함선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예 바다를 뒤덮어 수평선마저 가리고 있었다. 언젠가 왜승 젠소가 마을을 다녀간 뒤 남이가 오합지졸이라고 얄잡아 말하던 왜구의 출현이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병력을 실은 대함대의 출현이었다.

긴장과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서 눈 밝은 사람이 확인한 것은, 왜선에 탄 군사들이 모두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 사이에 그 사실이 퍼지자 저마다 오금을 저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

89)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22'장 도입부를 발췌하여 옮겼다.

했다. 그동안 전란이 일어날 것이라던 소문이 심심찮게 돌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막상 눈앞에 닥치니 자연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 당장 피난을 떠나야겠지만 이마저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터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하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였다.

## 2) 이른 아침 서녘 하늘에 화염이 솟았다<sup>90)</sup>

멀리 서녘 자성대성 위로 시커먼 연기가 매지구름처럼 피어오르더니 금세 하늘을 뒤덮었다. 시뻘건 불길도 함께 치솟았다. 좌수사 박홍(朴泓)은 성루에 올라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왜군이 쏘아대는 총포의 화약 연기가 하늘을 저토록 까맣게 뒤덮었다니……!”

진시(辰時)<sup>91)</sup>가 막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좌수사 박홍은 우후(虞侯)<sup>92)</sup>에게 지금 당장 수영성내에서 가장 발걸음이 빠른 자를 부르라고 명했다. 우후는 군관들에게 그런 자가 있느냐고 물었다. 군관들이 마침 황령산 봉수대에 근무하는 배돌이(裴玆伊)<sup>93)</sup>라는 자를

---

90)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25’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였다.

91) 십이시(十二時)의 다섯째 시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92) 좌수사의 부관(보좌관). 정4품 무관직.

93) 실존 인물이다. 이순신 장군의 장계 모음 『임진장초(壬辰狀草)』(국보 76호)에는

추천했다. 지체없이 황령산 봉수대로 관노비 하나를 올려보냈다. 그 사이에 서찰을 다 쓴 좌수사 박홍이 잠시 자성대성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운 가운데 벌건 불길도 치솟는 게 보였다.

### 3) 피난길에 오르다<sup>94)</sup>

……좌수영성 성내에서 제자리를 지킨 것은 석포 마장<sup>95)</sup>에 남은 여남은 마리의 말들뿐이었다. 하지만 말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워낙 예민한 동물인 데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왜군들이 신작로를 질주해 가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그 큰 눈만 멀뚱 멀뚱 껌벅이고 있었다.

선소에서 치솟는 불길은 황령산에서 올리는 봉수보다 더 시커먼 연기를 피워 올렸다. 석포 마장과 생천향<sup>96)</sup> 사이를 가로지르는 왜군의 군마 행렬이 흙먼지를 날리며 수영성을 향해 질주해 갔다.

---

“…이달 14일 묘시(卯時)에 황령산 봉수군 배돌이(裨賈伊)가 왜군 침략 사실을 치고(馳告)해 왔다(今四月十四日卯時, 荒嶺山烽燧軍裨賈伊進告曰, 倭賊等)”라는 기록이 있다.-조선왕조실록 1592. 4. 16 ‘인왜경대변장 3(因倭警待變狀 三)’

94)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25’장에서 발췌하였다.

95) 임진왜란 당시 대연동, 우암동, 감만동 일대를 통칭하던 ‘석포 목장(石浦牧場)’을 일컫는다.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1469)에는 국마장(國馬場)으로 목마 232필(匹)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96) 조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동래현조에 “생천향(生川鄉)은 현의 남쪽 20리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왜군과 전투가 벌어지기도 전에 수영성에서 무슨 일로 불길이 치솟고 있는지 인근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한편, 잉석의 식구들은 장자산 끝자락의 동산말을 향해 혁혁대며 기어오르고 있었다. 황령산 봉수대에선 위급상황을 알리는 수(燧)<sup>97)</sup>가 그칠 줄 모르고 피어올랐다. 벌써 산 중턱쯤엔 깃발을 휘날리는 선두를 따라 봉수대를 향해 급하게 기어오르는 왜군들도 보였다. 얼마 후 황령산 봉수대의 연기는 급격히 잦아들었다.

#### 4) 임진년 사월 열나흘 밤<sup>98)</sup>

어디서 날아드는지 까마귀 떼가 용호만을 까맣게 물들이고 있었다. 남이의 따뜻한 품에 잠들어 있던 삽살개가 귀를 쫑긋 세우다 말고 다시 남이 품을 파고들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을 봤기에 말 못하는 짐승마저 이렇게 오금을 저릴까 싶었던 남이는 하염없이 삽살개를 쓰다듬었다.

잉석의 어머니는 그 와중에 식구들 저녁밥 걱정이 앞섰던지 서까래 밑에 걸어놨던 수수보리밥 소쿠리를 내렸다. 새벽 피난길에 잉석의 어머니가 황급히 손으로 퍼낸 자국이 역력히 남아 있었다.

---

97) 변방의 봉수대(烽燧臺)에서 중앙으로 봉(烽: 횃불)과 수(燧: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조선 시대 군사 목적의 통신 수단.

98)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28'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였다.

남이와 경아도 자리를 같이 했다. 반찬은 물김치에 마른 멸치, 그 옆에 된장, 작은 종발에 담긴 물소금<sup>99)</sup>은 늘 그대로였지만, 툇나물과 삶은 참고둥은 며칠 전 거미섬<sup>100)</sup>에서 채취한 것들이었다.



썰물 때 바닷물이 빠져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미섬'  
 사진<sup>28)</sup>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하지만 참고둥은 초무침 대신 껍질 채 올라 있었다. 속을 파내 초고추장에 버무릴 시간도 없었고 경황도 없었다는 걸 다들 잘 알았다. 그렇다면 이왕 상에 올라와 있으니 속을 파내 물소금이나 된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니 숟가락을 드는 등 마는 등하고 저녁상을 물렸다. 잉석의 어머

---

99) 약 88℃~90℃로 가열하여 소금 결정을 얻는 염소고(鹽燒藁) 이전의 소금물  
 100) 앞의 '각주 60)'과 내용이 같음.

나는 정지간<sup>101)</sup>에서 막사발 부딪히는 소리라도 날 새라 몹시 조심하며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선 한숨부터 쉰었다.

##### 5) 다시 피난길에 오르다<sup>102)</sup>

……남녀유별은 더이상 가릴 상황도 아니었다. 잉석은 남이의 손을 꼭 잡아끌었다. 발부리에 나뭇가지가 걸려 넘어져도 역센 힘으로 끌어당기니 각시들에게서는 더이상 신음소리가 나지 않았다. 잉석이 향한 곳은 먼젓번에 숨었던 동산말 골짜기의 석굴이었다. 각시들이 석굴 안으로 떠밀리듯 들어간 뒤 잉석은 급한 대로 소나무 가지를 꺾어 석굴 입구를 가렸다. 오늘따라 해풍도 거셌다. 마지막으로 칠히를 소나무 가지 위에 얹고 잉석도 동굴 안으로 몸을 숨겼다. 좌수영성은 흰한 대낮처럼 밝아 있었고, 선소<sup>103)</sup>에는 햇불을 밝힌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절영도 쪽에서 이쪽 좌수영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는 판옥선도 보였다. 바다도 이젠 왜군들이 완전하게 장악한 것 같았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에 오금이 저렸다. 그때였다. 언제 뒤따라왔는지 삼살개가 요란하게 짚으며 석굴 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탕-! 천지를 뒤흔드는 조총 소리가 났다. 삼살개 짚는 소리가 더 요란스럽게 들렸다. 남이가 입을 가렸다.

---

101) 표준어는 '정주간(鼎廚間)'. 경상도 방언에는 '부익'으로 통용.

102)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 '31'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였다.

103) 배를 정박하거나 수리하는 곳.

(중략)

왜군의 조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섬광이 석굴 안을 향해 송곳처럼 찢러 들어갔다. 놀란 삽살개가 튀어나오며 미친 듯이 짖었다. 엉겁결에 다른 왜군이 조총을 쏘다. 삽살개는 쾅! 하는 짧은 외마디 소리와 함께 그만 즉사하고 말았다. 흐트러진 석굴 입구에 햇불을 들이댄 왜군들은 기어코 석굴 안의 사람들을 발견했다.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소리가 마구 내질러졌다. 파랗게 질린 남자와 경아가 나오고 그 뒤로 강 별장이 두 손을 어정쩡하게 치켜든 채 따라 나왔다. 또 다시 왜군들의 고함소리가 들렸다. 세 사람은 조총부리에 찢러가며 석굴까지 올라왔던 길로 되돌아 내려갔다.

# 3

## 이기대(二妓臺), 전설의 시작







### 3장 이기대(二妓臺), 전설의 시작

#### 1. 절의(節義)를 택한 두 기생<sup>104)</sup>

너른바위 위의 주연은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다. 기시(奇時)<sup>105)</sup> 대장이 한쪽으로 비껴 앉아있던 두 각시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 걸태장<sup>106)</sup>이 중간에서 통역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지만, 그녀들은 응하지 않았다. 기시 대장은 그녀들이 거부한다는 걸 알고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뭐라 알아듣지도 못하는 고함을 내질렀다. 남이가 걸태장을 향해 나지막하면서도 비수와 같은 목소리로 되받았다.

“부끄럽지도 않소! 사내대장부가 할 짓이 없어서 내 나라 내 형제를 도륙하는 왜군에게 빌붙어 목숨을 연명한단 말이오? 이게 무슨 망령되고 무지렁이 같은 행동이란 말이오? 당신에겐 부모 형제도 없소? 사람이길 포기한 왜군에게 빌붙어 목숨을 구걸하는

---

104)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33’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면서 재구성하였다.

105) 임진왜란 당시 좌수영성에 주둔한 왜군 지휘관(구전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

106) 걸태질(염치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재물을 마구 긁어모으는 짓)을 잘하는 자를 비꼬아서 붙인 은어(隱語).

당신도 참 딱하오.”

걸태장은 부들부들 떨었다. 화가 난 기시 대장이 왜기 한 명의 손을 낚아채더니 오비(帶)<sup>107</sup> 끈을 확 잡아챘다. 남이와 경아는 아예 얼굴을 돌려버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이번엔 경아의 입에서 다급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가야금 산조는 중모리를 지나 자진모리로 바뀌고 있었다. 요나이(米內)<sup>108</sup> 오장(伍長)은 조선을 기뻐하며 끌어안고 산자락과 맞닿은 벼랑 아래의 짙은 그늘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묵묵히 술만 퍼 넣고 있던 고이소(小磯)<sup>109</sup> 부대장이 갑자기 우악스런 손길로 남이의 옷을 벗기려 했다. 남이가 본능적으로 반항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손길은 더욱 거셌다. 그 순간 남이는 상 위에 놓여 있던 나무젓가락을 집어 고이소 부대장을 향해 힘껏 찔렀다. 고이소 부대장의 입에서 욕! 하고 투박한 비명이 새어 나왔다. 그의 허벅지에 표족한 나무젓가락이 꽂혀 있었다. 남이로선 분명 심장을 향해 찔렀지만 미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허벅지에 꽂힌 것도 그리 깊지 않았다. 화만 돋운 셈이었다. 고이소 부대장의 술뚜껑 같은 손이 남이의 따귀를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남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얼굴을 감싸며 거꾸러졌다. 고이소 부대장은 허벅지에 꽂힌 나무젓가락을 쓱 빼내 획 팽개치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시 대장을 따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술기운 때문인지 통증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

---

107) 일본의 복식에서 단추나 끈이 없는 옷자락을 덮어 허리에 둘러 묶는 띠.

108)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성에 주둔한 왜군 지휘관(구전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

109) 임진왜란 당시 경상좌수영성에 주둔한 왜군 지휘관(구전된 이름을 그대로 사용함).

다. 둘이 걸음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비틀거리자 왜기들이 부축하려고 한쪽 팔을 쫘다. 하지만 냅다 뿌리친 그들은 암반 끄트머리로 비틀거리며 나갔다. 경아가 몸을 가리며 모든 걸 체념한 눈빛으로 남이를 쳐다봤다. 남이의 눈길이 불길처럼 이글거렸다. 기시 대장과 고이소 부대장은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오장육부에 가득 찬 욕망의 물줄기를 쏟아냈다. 경아와 눈길이 마주친 남이의 얼굴엔 슬픔과 치욕과 분노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남이는 허공을 올려보며 긴 한숨을 내뿜었다. 경아는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짧은 순간 들은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집채만 한 노도를 봤다. 남이가 경아에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강렬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와 내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살아왔듯이,  
 이 땅에 사는 모든 부모 형제들도 그러하였건만,  
 무구한 사람들을 도륙한 이 짐승보다 못한 자들에게  
 오욕의 분탕질까지 받아야 한다더냐?  
 모멸과 농락과 능멸당함이 끝 간 데 없으니  
 이 시간이 지난들 그 치욕을 어찌 삭이랴.  
 짐승보다 못한 자들에게 이르겠노라.  
 이 땅의 민초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를,  
 사람이길 포기한 이들의 췌값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의 순절을 통해서 알려주련다.  
 내가 죽거든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이 짐승들이 어떻게 멸망하는가를 내 죽음에 알려다오.

그리곤 경아의 절통해 하는 눈빛을 보며 양다문 입술을 짓씹었다. 남이의 입언저리엔 마지막 인사인 양 몹시 짧고 씹쓸한 미소도 얹혀 있었다. 경아가 설핏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슬그머니 일어난 남이는 벌써 치마끈을 푼 뒤였다.

아니 되오, 아니 되오.

나도 언니 뒤를 따르려오.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치욕이라,

평생 동안 그 고통 짊어지고 나 혼자 어찌 살아간단 말시오?

이미 가슴은 난도질당했지만,

몸뚱이마저 오욕으로 분탕질 당하고서야 어찌 살아간단 말시오?

원통하고 절통하고 분한 마음 다독이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위무한들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을 듯하니

나도 이 땅의 민초요 딸일진대,

그 딸의 분노로 이들의 죄값을 일러주고,

이 땅의 민초로 우리의 분노를 전해주려니,

나도 마땅히 언니 뒤를 따르려오.

경아가 ‘언니!’ 하고 외마디 비명처럼 불렀지만, 기시 대장을 치마로 덮어씌운 남이는 힘껏 그를 바다로 밀어 넣었다. 고이소 부대장이 어! 하고 놀라워하는 것도 잠시, 경아도 뒤따라 그를 끌어안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너무나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휘몰아치던 가야금 소리가 조금 느슨해지는 걸

느낀 왜기 한 명이 흐트러진 기모노를 추스르다 말고 그만 악!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제 입을 틀어막았다. 쪼그려 앉으면 바닷물이 손에 닿을 만큼 나지막한 너른바위 끄트머리에 시신 네 구가 엉겨 붙은 채 떠올라와 있었던 것이다. 연회장은 삼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요나이 오장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주변에 있던 부하들과 기생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곤 핏발 선 눈으로 연성을 높였다.

“오늘 일어났던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만약 발설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초병들은 기시 대장과 고이소 부대장을 빨리 배에 실어라. 그리고 나머지 초병들은 이곳에 있는 모든 흔적을 없애라. 술 안주거리 한 점이라도 바닥에 떨어진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뭐든 남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 남이와 경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요나이 오장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성난 파도보다 더 높게 휘몰아치는 그의 재촉만 이어졌다. 남이와 경아의 주검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조선 기생 한 명이 우왕좌왕하는 틈을 타 슬그머니 그곳을 빠져나왔다. 마을을 향해 쟁걸음을 날린 그녀는 남이와 경아의 죽음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두 기생의 순절 장면을 묘사한 그림<sup>110)</sup>  
 사진<sup>28)</sup>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옹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 2. 매하자상(妹下姉上)의 배치 ‘이기총(二妓塚)’<sup>111)</sup>

남이와 경아의 시신을 수습한 것은 그 뒷날 밤이었다. 문 씨와 마을 사람 여섯 명이 횃불 하나 밝히지 못한 채 캄캄한 길을 더듬어 너른바위로 갔다. 얼기설기 엮은 칠푼굴 위에 넓은 천을 깔아 그 위에 시신을 모셔오기로 하고 마을을 나섰는데, 앞뒤 두 사람

110) 이기대 해안산책로에 세워진 스토리텔링 ‘이기대 이야기’ 안내판 전면 그림에서 이 그림 부분만 발췌한 것임. 뒤의 ‘사진<sup>28)</sup>’ 참고.

111)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 ‘34’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였다.

이 시신 한 구씩을 맡고, 나머지 두 사람이 각각 길잡이를 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래도 힘겨울 것 같으면 결례가 되더라도 지계에 실어오기로 입을 모았다. 그날따라 성난 파도가 뿌려대는 흰 포말의 그림자와 바다 전체를 비치는 달무리가 칙칙한 색깔로 어우러지면서 시야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중략)

나중에 혹여 이번 사건이 잠잠해지고 각시들의 시신에 대한 왜군의 심문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사리 때가 되면 바닷물이 범람할 때도 있지만, 풍랑이 심하게 일 때도 있는데, 파고가 높고 거칠 때 너른바위까지 파도가 치고 올라오니까 각시들의 시신도 파도에 쓸려갔을 거라고 대답하면 왜놈들이 더이상 추궁할 여지가 없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래서 두 각시의 장례는 경건함 속에서 정성을 다하되, 때가 때인 만큼 최소한의 격식만을 따르자고 했다. 출상 전날은 망자를 위로하기 위해 삼시 세끼 따뜻한 밥을 지어 행랑채에서 제사를 올렸다. 장례식은 치른 셈이었다. 그리고 뒷날 발인제도 없이 두 각시를 장지로 운구해 갔다. 물론 조종 소리도 없었고 곡성도 없었다. 다만 장지로 올 때 잉석의 집을 둘러보고 왔기 때문에 노제는 치른 셈이었다. 그렇다고 꽃상여로 운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지계 위에 낡은 송판을 대고 그 위에 두 각시의 시신을 따로 얹어 힘들게 장지까지 각각 운구해 왔을 뿐이었다. 그 일을 그나마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침저녁으

로 순찰을 돌던 왜군의 걸음이 예상했던 대로 푹 끊겼기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로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일이었다. 비록 지관을 불러 터를 살핀 것은 아니었으나, 각시들의 유택을 쓴 곳은 좌수영성을 바라보는 장자산 기슭의 하단부 오목한 곳으로 햇살이 잘 내리는 곳이었다. 무덤은 아래 위쪽에 각각 하나씩 따로 썼다. 위쪽에 쓴 묘는 언니인 남이 각시의 묘였고, 아래쪽에 쓴 묘는 동생인 경아 각시의 묘였다. 좌수영성에서 바라보면 동생이 언니 앞에 약간 비스듬히 비껴 서있고, 언니는 동생 뒤에서 옆으로 살짝 얼굴을 내민 매하자상(妹下姉上)<sup>112)</sup>의 배치였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비석은 물론이고 상석도 놓지 못했고 곡장도 두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즉석에서 의논했다. 두 여인의 순절 앞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최상의 예를 갖추 수 있는 것은 유택을 크게 지어 나중에라도 잘 찾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무덤가를 떠났다. 따스한 햇살을 닦으려는 해풍이 갯내를 풍기며 장자산 너머로 불어갔다. 꽃다운 두 여인이 왜장을 끌어안은 채 바다에 몸을 던졌다는 이야기가 아릿한 갯내에 섞여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해 여름 무덤가에서 그녀들의 혼불이 날아다닌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정녕 두 여인의 넋인 줄 알았다. 그 후에도 해마다 여름이면 각시들의 무덤가에 수백, 수천 개의 혼불이 날아다녔다. 반딧불이의 향

---

112) 조선 시대 묘제 풍습 중 손윗사람인 언니를 위쪽에, 손아래 동생을 아래쪽에 배치한 계장(繼葬)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연이었다.

### 3. 왜군 제1 번대장(番隊長)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분노<sup>113)</sup>

고니시는 좌수영성에서 올라온 급보를 펴보곤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버럭버럭 고함을 쳤다. 사위인 소 요시토시도 감히 곁에 다가서지 못할 정도였다. 전령은 최고사령관의 전갈을 받아가기 위해 여전히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있었다. 고니시는 그런 전령의 등 뒤에 꽂힌 사시모노(指物)<sup>114)</sup>를 쑥 뽑았다. 그리곤 눈 깜짝할 사이에 전령의 등짝을 후려갈겼다. 전령은 억! 하고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거꾸러졌다. 소 요시토시로선 급보 내용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저 눈치만 보고 있었다.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겐소가 나섰다.

“장군, 부하 장졸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만 분을 참으시고 냉정을 찾으십시오.”

“칙쇼! 칙쇼!”

“장군, 무슨 급보기에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

113)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 ‘35’장에서 부분적으로 발췌, 일부 단락을 생략하거나 삭제하였다.

114) 왜군 전령의 소속을 식별할 수 있도록 대나무에 달아매어 등에 꽂고 다녔던 작은 기(旗).

고니시는 들은 채 없이 또 한 번 전령의 어깨를 후려쳤다. 헉! 하고 허파에서 바람 빠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전령이 바닥에 그대로 거꾸러지자 이번엔 사정없이 전령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전령은 사시나무 떨 듯 온몸을 떨며 기어드는 목소리로 고니시를 향했다.

“현장을 목격한 노군<sup>115</sup>의 말을 빌리자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상한 일?”

“그러니까 술에 취한 군장들이 비틀거리며 벼랑 가로 가서 오줌을 누는데, 조선 기생 둘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치마를 덮어씌우고 뒤에서 끌어안은 채 바다로 투신을 했답니다.”

젠소가 침을 꿀꺽 삼키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고니시가 버럭 고향을 쳤다.

“단칼에 베어도 성에 차지 않을 놈들에게 후방을 맡겼어. 전방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까짓 놈들이 기생들을 꺾치고, 그것도 모자라 목숨까지 잃다니. 칙쇼!”

고니시는 사실 마음이 급했다. 가토<sup>116</sup>보다 먼저 충주에 입성해

---

115) 배의 노를 짓는 '능로군(能櫓軍)'을 가리킴

116) 조선 침략군 제2진 총사령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를 일컬음. 조선 침략군 제1진 총사령관 고니시 유키나가와는 정치적 앙숙 관계.

서 느긋하게 기다리며 그의 콧대를 눌러버리고 싶었다. 아니, 여차하면 독자적으로 한양까지 치고 올라가 조선 임금의 항복을 받고 가토에게 보란 듯이 공적을 자랑하고 싶었다. 하지만 충주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가려 했던 계획은 차질이 생기고 말았다. 바로 대구 용암산성(龍岩山城) 전투에서 조선 의용군의 저항이 너무 심해 발이 묶여 버렸던 것이다. 게다가 사상자들까지 많이 발생했다.(이하 생략)

이 내용에 이어 고니시 유키나가는 후방 주둔군의 지원 역할에 공백이 생기자 몹시 분통을 터뜨리며 자신의 사위이자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 심복 중 지휘관급 3명을 그날 밤 경상좌수영으로 급파하고, 너른바위에서 자축연을 벌일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급 지휘관들을 모두 색출해서 죄의 경중 여부를 확인해 즉결 참수하거나 본부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 4. 왜란 7년의 끝<sup>117)</sup>

매서운 삭풍을 어떻게 견뎌낼까 걱정하고 있던 마을 사람들에게 전혀 뜻밖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왜군들이 밤새 좌수영성을 텅텅 비우고 바람처럼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처음엔 그 사실을 긴가민가하며 제 귀를 의심했지만, 정말 좌수영성엔 눈 씻고 찾아봐도 왜군은커녕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모든

---

117)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39'장 전문을 그대로 옮겼다.

것이 고마웠다. 하늘도 땅도 고마웠다. 운무도 해무도 고마웠다. 산새와 물새의 울음소리는 감격의 찬가였다. 마을 사람들은 참으로 오래간만에 풍물을 치며 산과 들을 누비는 기쁨으로 온 사방을 뜨겁게 녹였다.

## 5. ‘이기대(二妓臺)’라 부르기 시작했다<sup>118)</sup>

신축년(辛丑年, 1601년)에 든 지 엿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꽃샘추위도 완전히 물러가고 따사한 햇살이 내리는 봄이 되었다. 올 봄은 연분홍 진달래가 유난히 많이 피더니 이제는 갖가지 나무에서도 서로 앞다투어 향기로운 꽃망울을 터뜨렸다. 생강나무는 노란 꽃잎을 무성하게 피웠고, 합다리나무는 손톱만 한 작은 꽃들을 하얗게 피워 가지마다 알알이 달아놓았다. 장자산 남쪽부터 일찍 꽃망울을 터뜨린 합다리나무는 어찌면 두 각시의 보사한 낮빛처럼 그 작은 유백색의 꽃으로 달콤한 향기를 사방으로 날려 보냈다. 4월 25일, 마을사람들은 저마다 새물내 나는 옷으로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을 앞세우며 장자산을 향했다. 마을사람들이 장자산에 도착하자 벌써 동래부(東萊府) 기생들이 두 각시의 무덤 앞에 돛자리를 깔고 임시 석상을 만들어 음식을 진설해 놓고 있었다. 무녀도 화려한 나화(羅花)<sup>119)</sup>로 치장하고 굿거리 채비를 마친 뒤였다. 악기와 악공, 소리꾼과 춤꾼도 각자 제자리를 잡고 제의가 시작되길 기다

---

118)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41'장 전문을 옮겼다.

119) 무속 의례에서 사용되는 비단으로 만든 꽃.

렸다.

(중략)

소문을 들은 인근 마을사람들도 찾아와 무덤 주변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두 여인의 죽음이 만인의 애통함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동정심과 동경심이 투사된 공감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제 두 각시는 단순한 관기가 아니었다. 순절의 사표가 되어 마을의 수호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각시들이 마지막으로 몸을 숨기며 머물렀던 동산말 끄트머리의 석굴을 '각시당'이라 불렀다. 마치 절개가 곧고 청빈한 목민관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한 뒤 글과 서화로 세월을 보내던 처소를 그렇게 부르듯이, 비록 조그만 석굴이지만 왜군들에게 붙잡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한 그곳이 마치 각시들의 안락한 처소와 같기를 빈다는 애통함이 그 속에 녹아 있었다. 바로 발아래 동편에는 깊은 울림을 울려주는 단애의 해식동들이 나열해 있고, 북편으로는 좌수영이 한눈에 바라다보이는 동산말 코숭이의 그 각시당은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해마다 두 각시의 영령을 위무하는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도 함께 비는 곳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각시들의 유택도 정성스레 돌보았다. 그때부터 그녀들의 넋이 흩날린 너른바위가 있는 곳을 일컬어 이기대(二妓臺)라 부르기 시작했다. 지척에는 오륙도가 있었다.



이기대 초입 동생말(동산말) 산책로  
사진Ⓜ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4

## 해안 절경에 묻혀 있는 ‘이기대(二妓臺)’





## 4장 해안 절경에 문혀 있는 ‘이기대(二妓臺)’

### 1. 잡초와 넝쿨에 싸인 이기총(二妓塚)

문헌의 오기(誤記)는 후세인들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과 같다. 그로 인하여 오랫동안 이기대의 유래를 증빙하는 두 기생의 무덤을 찾지 못했다면 더욱 그러하다. 먼저, 『부산지명총람(釜山地名總覽)』과 『남구의 민속과 문화』에 기록된 이기대의 유래와 『내영지』의 ‘산천조’에 기록된 이기대의 유래를 아래 [표2]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어떤 부분이 오기<sup>120)</sup>되었는지 알 수 있다.

[표2]

내영지	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塚云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 상유 이기총운
부산지명총람	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場云 <sup>121)</sup>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 상유 이기장은
남구의 민속과 문화	二妓臺 左營南 十五里 上有 二妓臺云 <sup>122)</sup>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 상유 이기대운

120) 앞의 ‘각주1’)의 책에서, II. 남구, 과거의 이야기를 찾아 떠나다. P155의 ‘각주 41)과 ‘각주 42)’의 지적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121) 『부산지명총람(釜山地名總覽)』(부산시편찬위원회, 1997), 부산. 대원인쇄문화사 P79. - 앞의 ‘각주1)’의 책 P172 ‘용어해설’에서

122) 『남구의 민속과 문화』 남구민속회, 2001. P197. - 앞의 ‘각주1)’의 책 P172 ‘용어 해설’에서

[표2]에 적힌 내용 중 비교 대상이 되는 밑줄 친 글자만 봐도 한 눈에 알 수 있듯이, 두 기생의 무덤뿐만 아니라 이기대의 유래에 대해서도 『내영지』 원문에서 많이 빗나가 있다. 『내영지』 ‘산천조’의 기사를 조금 친절하게 다시 말해 보면 “이기대는 좌수영 남쪽 15리 되는 곳의 위에 두 기생의 큰 무덤이 있어 그렇게 말한다더라.”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부산지명총람』의 ‘二妓場(이기장)’은 ‘두 기생의 마당’이 되고, 『남구의 민속과 문화』의 ‘二妓臺(이기대)’는 ‘두 기생의 돈대(墩臺)’가 된다. 비록 글자의 숫자는 1자만 틀린 것에 지나지 않지만, 그 뜻은 『내영지』의 ‘이기총(二妓塚)’과 전혀 다른 뜻이 된다. 이 오기로 인하여 내 고장 향토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자료를 찾던 유수의 연구자들은 이기대의 유래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전에 의한 ‘꽤 오래된’ 또는 ‘아마도 수백 년 된’ 두 기의 큰 무덤이 실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2011년 9월 초, 용호동 입향조로부터 약 310여 년 넘게 토착민 후손으로 살고 있는 왕정문(王正文), 대연동 입향조로부터 약 180여 년째 토착민 후손으로 살고 있는 공기화(孔琪和) 2인이 그동안 지역민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던 큰 무덤 2기(基)를 찾아보기로 의견을 나눈 뒤 용호동 이기대 초입 동산말의 석굴(각시당)을 들르고 너른바위를 거쳐서 장산봉 일대를 탐사하게 되었다.



이기총 발견 당시의 묘소와 주변 모습  
 사진Ⓢ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옹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큰 무덤 2기를 발견하는 데에는 『국역 내영지』의 ‘이기대 유래’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어린 왕정문이 코흘리개 때부터 성묘를 따라다녔던 기억들이 동원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기총 묘역 추정지 일대는 야생목과 잡초와 넝쿨이 뒤덮여 있어서 큰 무덤 2기를 찾는 일이 그리 간단치 않았다. 두 사람은 헛걸음이 되면 다시 산정으로 올라가서 방향을 잡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착오를 수차례 겪었다.

큰 무덤 2기를 찾는 동안 임진왜란 당시의 좌수영성 위치를 현주소지로 하고 그 지점에서 남쪽으로 15리, 즉 6km 떨어진 위치를 구글 어스(Google Earth)<sup>123)</sup>를 통해서 여러 차례 거리측정을 했다.

---

123) 미국의 구글(Google) 사가 2005년에 개발하여 보급한 웹 기반의 위치서비스 프로그램.

그 결과 좌수영에서 이기총까지 약 5.8km가 나왔다. 6km에서 200m 정도가 빠진 거리였다. 두 사람은 그 정확도가 경이로워서 승지 이형하와 그의 죽인(친척), 그의 책실(비서) 세 사람의 진심 어린 노고를 절감하며 깊은 감사를 올리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리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뭇가지에 굽히고 가시에 찢려 가며 묘소 주변의 잡목과 잡초, 칙닝쿨 등을 대충 걷어냈다. 그때 야 아슴푸레 무덤의 형체가 드러났다. 무덤 동북쪽 어귀에는 얇은 돌 축대의 흔적도 보였다. 두 사람은 남구청에 전설 속의 ‘큰 무덤 2기 발견’을 보고하였다. 이 사실은 기사화되었으며<sup>124)</sup>, 2011년 9월 8일(백로) 오후 남구청 공원관리팀에서 두 기의 큰 무덤을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묘소 주변까지 깨끗하게 벌초하고 그곳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사진②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

124) 부산남구신문 189호 특집 화보(2011. 10. 25.) ‘이기대 두 기생 무덤 발견’ 기사

그리고 남구청 당국은 이기대 정상 부근 아스팔트 도로 옆에 다음 내용의 글이 적힌 입간판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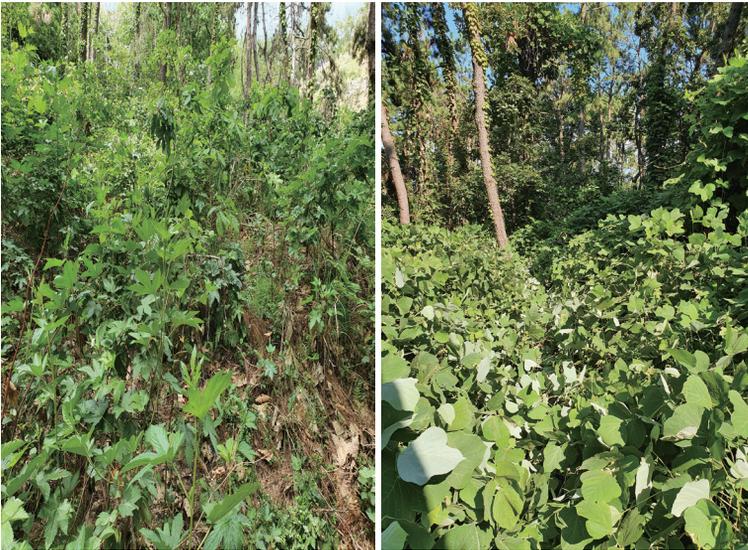


사진Ⓢ / 제공 : 왕정문 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공고문 입간판을 세워 놓은 지 만 3년에 이를 즈음이었다. 무덤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구청으로 전화를 했다. 이에 남구청에서는 공고문 입간판을 치워버렸다. 무덤 주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몇 대 조상님이 안장되어 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연사인지 병사인지,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다. 문제는 그 주인이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한번 성묘하고 그 이후로 이기총 묘소에 대하여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다시 찾은 이기총 묘역은 2011년 처음 발견할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상태로 변해 있었다. 여러

해 동안 성묘하지 않았는지 큰 무덤 2기 주변은 산딸나무, 참수리 나무 등이 잡초와 함께 무성하고 그 위에 넝쿨이 뒤엉켜 정글처럼 변해 있었다. 또 주변에는 재선충 피해로 벌채(伐採)하여 쌓아둔 소나무 더미가 산재해 있어서 전혀 이기충 묘역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또 수개월이 흐른 뒤 다시 찾은 이기충 묘역은 아예 사람의 접근조차 어려울 만큼 변해 있었다. 한 걸음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만 돌아서야 했다.



2021년 5월경 이기충 묘역

2021년 8월경 이기충 묘역

사진@ (좌), 사진@ (우)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2. 이기총 묘역(墓域)은 ‘의부지(義婦地)’였다

조선 시대 ‘고이리(古李里)’라는 마을이 있었다. 후일 ‘용소(龍沼)’ 마을의 중심이 된다. 지금의 부경대학교 대연 캠퍼스 정문 일대에 살았던 경주 이씨<sup>125)</sup> 집성촌을 일컫는다. 1904년(광무 8)에 간행된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慶尙南道 東萊郡 家戶案)』<sup>126)</sup>에도 용소 마을에 약 500여 년 전부터 경주 이씨 20여 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마을 이름은 경주 이씨 증시조 익제공파(益齊公派) 이제현(李齊賢) 공(公) 족보에 나타나는데, 이때가 선조 35년(1602)이다. 용소 마을 입향조는 이보다 약 130년 앞선 1470여 년대 초의 인물로 추정하는 이항징(李亢澄)<sup>127)</sup>으로 보고 있다.

경주 이씨 문중의 족보에 의하면 현재 대연동의 토박이 후손인 이소명<sup>128)</sup> 선생의 5대조 이양섭(李良燮, 丁卯生~丁丑卒)의 묘소가 ‘의부지(義婦地)’로 표기된 장소에 안장돼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안장된 시기는 이소명 선생 본인의 나이와 5대조를 보태보니 대략 220여 년 전인 1800년대 무렵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또 200여 년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

125) 『부산지명총람』 3권 ‘남구 편’에 “1904년 간행된 《경상남도 동래군 가호안》에 의하면, 용소 마을에는 약 500년 전부터 경주 이씨 20여 호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라고 기록돼 있다.

126) 경상남도 동래군(東萊郡) 편찬, 동래군 12개 면(面)의 가호 대장(家戶臺帳).

127) 앞의 ‘각주 58)과 같은 소설책의 ‘51’장에 있는 ‘각주 112)에도 같은 내용이 소개되었음.

128) 현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거주. 남구 향토사연구가·서예가.

이와 같은 흐름을 봤을 때 임진왜란 이후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이 사표가 되어 ‘의부지’라는 지명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경상좌수영의 영지와 방리에 산재한 일반 백성의 여러 문중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나 싶다. 또 그 ‘의로운 순절’에 대한 인식은 임진왜란 이후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흐름을 따라 경주 이씨 문중에서도 ‘양섭지묘(良燮之墓)’를 의부지에 조성하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게 된다.

예부터 어느 문중이든 식자(識者)가 족보를 썼다는 점에서 경주 이씨 양섭지묘에 기록된 ‘의부지’는 분명 이기충을 가리키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 일반적으로 ‘의부(義婦)’는 절개가 굳고 의로운 여자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곧 ‘의사(義士)’, ‘의부(義夫)’와 같다. 굳이 구분하면 ‘의(義)’를 행하는 주체가 남자냐 여자냐 그 차이일 뿐이다. 곧 의부(義婦)는 ‘옳은 일, 의로운 일, 바른 일’을 하였고, 순절하였다면 그 행적을 기리고 우리름의 대상이 된 여자를 일컫는다. 바로 ‘두 기생’이다.

의부지의 상징인 이기충의 사실적인 문제에 접근해 보면, 두 무덤 간의 간격과 사방 경계의 묘역이 매우 좁다. 웬지 ‘충’의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듯해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조선 시대 묘소는 벼슬의 품계에 따라 무덤을 중심으로 사방 묘계(墓界)<sup>129)</sup>가 큰 차이를 보였다. 종친(宗親) 1품은 사방 100보(步), 2품은 90보 식으로 10보

12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검색어 ‘묘계(墓界)’ - ‘신분에 따른 묘지의 범위’ 참고.

씩 묘계가 줄어들었다. 문무백관(文武百官)은 종친의 묘계 기준에서 10보씩 체감되고, 일반 백성은 사방 10보 이내였다.

이기총의 묘계는 무덤을 중심으로 사방 10보쯤 되는 정도로 협소하다. 무덤 동북쪽에 쌓아진 얇은 석축 끝을 경계로 하면 10보 정도가 고작이다. 일반 백성들이 사후에 누리는 묘계와 거의 같다. 이 때문에 이기총의 주인은 환적(宦織)도 없고 벼슬 품계도 없는 사람이 안치되어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게다가 일반 백성의 무덤보다 서너 배가 더 큰 무덤인데도 두 무덤 사이의 거리가 손에 닿을 만큼 가깝게 조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모두 미루어 보면, 왜장을 끌어 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기생의 무덤을 조성할 때 왜군 주둔군의 통제 없이 전래의 묘제를 제대로 지키면서 장례가 치러졌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다만 두 기의 봉분을 중심으로 동북쪽에 얇은 석축을 쌓아 땅을 고르고 경사를 최소화하는 계절(階節)<sup>130)</sup>을 조성했다는 점은 그나마 그 긴장 상태가 없던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더라도 왜군의 눈에 쉬 띄지 않을 장소를 골라 두 기생을 안장했을 테니 당시 마을 사람들의 고충은 짐작되고 남음이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세인들이 두 기생의 순절을 기릴 만한 그 어떤 묘전의물(墓前儀物)조차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럼

---

130) 무덤 앞을 평평하게 만든 땅.

도 불구하고 좌수영성 영저와 방리의 백성들은 이기총이 조성된 이후 어느 때부터인가 ‘의로운 일을 하고 떠난 두 여인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기총의 묘역 일대를 ‘의부지(義婦地)’로 삼아 오랜 세월 동안 좌수영 영저와 방리에 터전을 두고 살아온 백성들의 여러 문중 족보에 기록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의부지’와 함께 유사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지명 두 개가 눈길을 끈다. 그중 하나는 ‘의부지(依夫地)<sup>131)</sup>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부지(依復地)<sup>132)</sup>이다. 두 곳 모두 ‘의지할 의(依)’자를 썼는데 ‘의로울 의(義)’를 가리키는 동음동의어(同音同義語)로 이해된다. 왜냐면 그 속뜻이 ‘의로운 죽음을 택한 두 기생의 유택이 있는 곳에 의지하여 영면하소서(돌아가소서)’라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부(夫)’와 ‘부(復)’이다. 앞의 ‘부’는 어른 남자를 가리킨다. 이기총 묘역이 임진왜란 이후부터 성지인 ‘의부지’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200여 년 뒤에도 어른 남자의 묘를 성지인 ‘의부지’ 일대에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뒤의 ‘부’는 부활(復活), 부흥(復興) 등의 용례에 비추어 봤을 때 두 기생의 묘역인 ‘의부지’에서 영혼만이라도 다시 좋은 곳으로(본디 왔던 길로) 돌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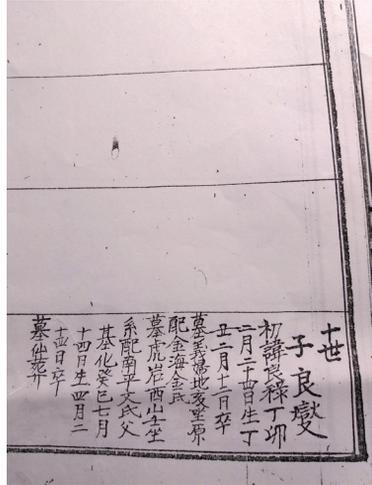
131) 옥편에는 ‘부(夫)’를 ‘지아버’, ‘사내’, ‘부역꾼’, ‘장부’ 등으로 풀이돼 있다. - 『최신활용옥편』(도서출판 理想社. 2001)

132) 復(돌아올 복, 다시 부). 여기서는 ‘부’로 읽는다. 옥편에는 ‘다시 살아남’, ‘다시 일으킴’, ‘갓다가 돌아옴’, ‘돌이킴’ 등으로 풀이돼 있다. - 『최신활용옥편』(도서출판 理想社. 2001)

영면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듯하다.



경주 이씨 양십묘  
(30m 후방 11시 방향 상단에 '이기총'이 있다).



10세손 양십묘는 '의부지'의  
남동쪽 언덕에 안장돼 있다고 기록돼 있다.

사진①(좌), 사진②(우) / 제공 : 이소명 향토사연구가 · 서예가



경주 이씨 양십묘에서 의부지(이부지)묘소를 향해 올라가는 길  
사진③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한편 용호동 개성 왕씨 문중의 족보에는 ‘이부등(利扶嶺)’이라는 지명이 있다. 용호동 사람들은 이 지명을 ‘이부지(利扶地)’로도 부른다고 한다. 글자 그대로 보면 ‘이로울 이(利)’, ‘도울 부’, ‘땅 지’가 되니, 여기에 ‘고개 등(嶺)’만 ‘땅 지(地)’와 바꾸어 보면 ‘이로운 곳으로(넘어갈 때) 도와주는 고갯길’ 정도로 이해된다. 실제로 이 길을 통해서 고갯마루에 올라서기 전, 앞의 ‘사진<sup>㉔</sup>’ 안내문 문구처럼, 동편의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고 산비탈을 따라 30m쯤 내려가면 ‘의부지’의 발원지인 이기총에 닿는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의롭고 이로운 곳’으로 인식된 곳, 그곳을 향하는 고갯길의 ‘이부등’은 두 기생이 묻혀 있는 ‘의부지’가 최종 목적지이다. 이 성지를 ‘이부지’로 부르는 까닭은 ‘동의보감 > 동의보감’, ‘강의실 > 강이실’ 등의 경상도 발음에 따라 긴 세월이 걸쳐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장자산 고개를 넘어야 하니 ‘이부등’이라는 지명은 자연스럽게 붙여진 듯하다.

그러나 이기대는 천혜의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명승의 자태를 보이지만, 달리 보면 날카로운 바위투성이 해안으로 매우 삭막한 곳이다. 그래서 ‘날카로울 이(利)’를 써서 이기대를 통칭한 지명이 ‘이부지’였다고도 한다. 그 어느 쪽이든 장자산 산마루에서 현 ‘이기대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 어울마당까지 넓은 산비탈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었고,<sup>133)</sup> 그 옆의 고갯길 ‘이부등’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로 변해버린 지 오래지만, 옛날에는 성지

133) 왕정문(향토사연구가·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설명.

인 ‘의부지’로 향하던 유일한 길이었다.

### 3. 순절한 두 기생과 소설의 주인공 ‘성춘향(成春香)’

용호마을 할머니들의 입을 통해서 며느리와 딸에게, 그 며느리와 딸이 할머니가 되어 또 딸과 며느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또 전한 400여 년의 세월 동안 두 기생에 대한 순절 이야기를 짧게 재구성해 보면, 왜군 주둔군이 수영성에 무혈입성한 임진년(1592) 음력 사월 열나흘 뒷날 밤 두 기생은 피난할 방도를 찾기 위해서 동산말 끄트머리로 갔다. 그곳에는 좁은 석굴<sup>134)</sup>이 있었다. 몸을 숨긴 두 기생은 수영성의 움직임을 살펴보던 중 개가 짖는 바람에 순찰 중이던 왜군에게 발각되어 수영성으로 끌려갔다.

그로부터 ‘열흘 뒤’ 왜군 주둔군의 승전 자축연이 벌어졌다.<sup>135)</sup> 남자와 경아 두 기생이 초췌한 모습으로 끌려 나왔다. 연회 상에 진설할 주포(酒脯), 과일 등을 나른 짐꾼 중에는 조선 사람도 있었고, 조선인 악공 5명, 조선인 기녀 2명이 있었다고 전해진다.<sup>136)</sup> 또 왜군을 따라온 종군 왜기(倭妓) 4명도 그 자리에 배석했다고 한

---

134) 구전에 의하면, 두 기생의 순절 후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각시당’이라 불렀다. 앞의 ‘사진④’ 참고.

135) 조선 침략군 제1번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자축연을 열었던 것으로 추정.

136) 왕정문(향토사연구가·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인터뷰 기사(국제신문 2013. 05. 14) 중에서.

다. 이들 중 왜기 4명은 수영성 주둔 왜군 지휘관 2명의 죽음 이후 모두 자성대성(子城臺城)으로 옮겨졌다고 전해진다.

드디어 연회가 벌어진다. 술잔이 연거푸 돌자 왜장들의 주지욕림이 점차 심해진다. 치욕을 견딜 수 없었던 두 기생은 절의(節義)를 품는다. 왜장들은 비틀거리며 파도가 들이치는 너른바위 끄트머리에 서서 발등이 젖는 줄도 모른 채 소변을 보면서 킬킬댄다. 두 기생은 망설임 없이 왜장들에게 치마를 덮어씌운 뒤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다. 얼마 뒤 외톨개모자반에 엉킨 시신 네 구가 떠오른다. 중간 상급자 요나이(米內) 오장(伍長)이 부랴부랴 술판을 뒤엎고 주검이 된 지휘관들을 배로 옮긴 뒤 좌수영으로 돌아갔다.

용호마을 사람들은 성난 파도가 들이치는 너른바위 끄트머리에 방치된 두 기생의 시신을 밤을 틈타 수습한다. 뒷날 날이 밝자 만고(萬古)의 파도 소리와 온갖 새소리가 어우러지는 장자산 기슭에 안장했다. 정면 동쪽으로는 너른바위를 내려다보고, 왼편 동북향으로는 광안리 망경대와 수영성 성루가 보이는 곳이었다. 그때부터 용호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백성들 사이에는 꽃다운 나이에 천추의 한을 품고 죽은 두 기생의 순절을 애달파하며 기리기 시작했다.

동산말 끄트머리에 있는 석굴 앞에는 누군가에 의해 날마다 새로 지은 밥과 국을 갖다 놓고 두 기생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그러던 것이 점차 반농반어(半農半漁)의 삶 속에서 바다에 나가 어로를

마친 사람이 만선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빌었고, 또 마을의 안녕과 마을 사람들의 무병장수는 물론 풍농(豐農)을 기원하면서 매년 음력 4월 25일을 제일(祭日)로 정하여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다른 깊은 의문 한 가지가 일어난다. 이기대의 유래에 얽힌 역사적 진실은 오늘날 허구의 인물인 『춘향전』의 ‘성춘향(成春香)’보다 그 인지도가 왜 부족할까 하는 점이 그것이다. 1962년 춘향의 무덤에서 나온 지석(誌石)에는 ‘서옥녀지묘’<sup>137)</sup>로 씌어 있었다고 하니 성춘향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럼에도 ‘춘향묘(春香墓)’<sup>138)</sup>가 조성되고 ‘만고열녀성춘향지묘’ 비석까지 세워져 있다. 이에 비하면 실존 인물인 이기(二妓)의 천추 한은 너무 초라하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왜군의 기상은 하늘을 찢었다. 한양 도성을 향해서 파죽지세로 치달을 때 온몸으로 왜군에게 저항했던 이름 없는 민초(民草)들은 말할 것도 없고, 왜군에게 몸을 유린당할 위기에 맞서다 죽임을 당한 여성들이 한둘이었을까. 그런 기개로 목숨을 버린 기생들 또한 얼마나 되었을까. 이 중에는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논개(論介)는 충절의 사표가 되었는데, 이기대 두 기생의 순절은 어찌하여 오늘도 용호만으로 밀려오는 파도에 천추의 한만 실어 보내고 있을까?

---

137) 남원에 빠지다(네이버 블로그).

138) 남원시청 홈페이지 통합검색 > 춘향묘 > 관광안내 > 포토갤러리



두 기생이 왜 잠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의로운 순절에 대한 스토리텔링 그림판  
(위치 : 이기대 너른바위 후방의 해안산책로). 사진④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 5

## 새로 쓰는 ‘이기대(二妓臺)’







## 5장 새로 쓰는 ‘이기대(二妓臺)’

### 1. 두 기생의 무덤 추정 ‘이기총’ 발견

그동안 우리는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에 따른 역사 현장에 깊은 관심을 두지 못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들의 천추 한이 그저 전설 속의 이야기 한 토막 정도로 치부되는 문제에 대하여 논리정연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놓은 적도 없었다. 그래도 향토를 사랑하고 향토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하려고 애써온 내 고장 부산 남구의 향토사 연구자들에 의해 2011년 9월 마침내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었던 이기대의 ‘이기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기총은 처음 발견 당시 앞 장에서 소개된 현장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잡초와 넝쿨에 싸여 ‘총(塚)’으로서의 규모를 쉽게 알아 볼 수 없었다. 지금 보는 사진은 벌초 후의 이기총 모습이다. 말끔하게 봉분을 드러낸 이기총은 두 기(基) 모두 일반 백성의 무덤보다 서너 배 크다. 그 크기를 가늠하려면 앞 장으로 돌아가 ‘4장 2. 이기총 묘역(墓域)은 의부지(義婦地)였다’에서 경주 이씨 ‘양섭지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쉽게 짐작된다.



두 기생의 추정 무덤

사진◎ / 인물 · 제공 :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수필가

공기화 부산교육대학교 명예교수와 함께 이기충을 발견한 왕정문(당시 부산 남구문화원 향토사 연구위원으로 활동)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자신의 할아버지가 1930년대 말엽부터 매년 현업에 종사하는 기생들을 이기충으로 초청해서 두 기생의 원혼을 달래는 위로연을 열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우리 조부께서 1965년까지 매년 부산 동구 초량동과 서구 충무동 권번(기생조합)에서 기생들을 이곳으로 불러 위로연을 열었다고 해요. 알고 보니, 두 기생의 넋을 위로하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챙기고 있었던 거예요.”<sup>139)</sup>

---

139) 앞의 '각주 1)'의 책 '부록II, 483P'에서

왕정문, 공기화 2인의 노고로 이기총을 발견했고, 그 이후 우리 고장의 향토사인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남구청, 2014)를 발간할 때 향토사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틈틈이 수집해온 ‘이기대’에 관한 구전, 방증, 추론, 대담, 신문기사 등을 실으면서 『내영지』를 중심 근거로 다각적인 설명과 함께 그동안 잘못 알려진 이기대 관련 내용과 이기총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 페이지(P152~P160)에 걸쳐서 소개하였다.

왕정문은 자신의 블로그(Daum)인 ‘농바우(농바위)’에 이기총 발견 당시의 묘소 상태를 사진으로 올려놓으며, 자신이 어릴 때만 해도 용호동에는 임진왜란 때 마을 사람들의 은사적 삶을 살았던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을 기려오던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하지만 그 풍습은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고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기생의 묘지는 오래전부터 마을 어른들께서 성묘를 하고 예를 갖추었다고 한다. 묘소를 관리하시던 용호동의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돌아가시고 별초도 하지 않아 잡목이며 섬팔기가 자라 봉분만 클 뿐 사가(私冢)의 해묵은 묘지처럼 보기가 흉하다.”

## 2. 역사의 거울이 우리에게 보내는 고언(告言)

두 기생의 이야기는 결코 전설이 아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을 관통해온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두 기생을 ‘의기(義妓)’로 추앙해야 하는 마땅한 이유이다. 그것을 증언하는 문헌이 『내영지』이다. 임금의 명령을 출납하는 승정원 우부승지 겸 경연참찬관 이형하가 『내영지』를 편찬하고 서문을 쓰며 당시의 역사 현장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증언이고 증거이다. 동래부(東萊府) 부산포와 인연이 깊었던 무반(武班)의 환적을 가진 그의 기록이기에 깊은 신뢰는 말할 것도 없다.

특히 반상의 법도가 엄격했던 유교 사회에서 ‘두 기생’의 무덤을 ‘총(塚)’이라 표현했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이른바 ‘주인 없는 큰 무덤’이 아니라 ‘주인 있는 큰 무덤’이라고 확인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두 기생의 존재를 『내영지』 산천조에 실었고, 이기대는 ‘이기총’에서 유래되었음을 표현하면서도 기사의 마지막 ‘이기총운(二妓塚云)’의 ‘운’은 ‘~있다 한다’로 풀이되므로 아쉬운 점도 있다. 그것은 소위 ‘~카더라’ 혹은 ‘누가 그러더라’와 같은 간접 표현이다.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실루엣처럼 남는다.

그 의문은 『국역 내영지』 ‘산천조’에 실린 31개 항목을 유심히 살펴보면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이기대’ 항목만 빼놓고 나머지 30개 항목의 풀이가 모두

완전한 서술형 종결어미로 끝난다는 점이다. 이른바 ‘~있다’, ‘~하였다’, ‘~ 옮겨갔다’ 등으로 확정적이고 단정적이다. 왜 이기대 항목만 유독 ‘(두 기녀의 무덤이) ~있다 한다’ 식으로 표현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까? 아니면 ‘신의 한 수’와 같은 절묘한 표현이 필요했을까?

앞서 ‘25의용단’ 내용에서도 설명했지만, 승지 이형하는 알았다. 두 기생의 죽음이 단지 여성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한 절의에서 비롯되었을망정 그 결과는 조선 침략 왜군 제1 번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의 전·후방 병력 운용에 따른 전술·전략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거나 타격을 가했던 것은 사실이다. 무반으로 잔뼈가 굵어 온 그였기에 그는 두 기생의 순절이 가져온 공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어찌랴. 임진왜란 당시의 사적(事蹟)을 널리 수집한 것은 좋으나, 『내영지』 51개 조를 엮으면서 무려 258년이나 지난 일을, 그것도 구전만으로 두 기생의 공적을 『내영지』에 올릴 수는 없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더욱 불가능했다. 그 안타까움을 대신 표현한 것이 ‘산천조’ 31개 항목 중 유일하게 이기대의 유래를 설명한 끝마디에 ‘이기총운(二妓塚云)’이라 하여 ‘운(云)’을 붙인 것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해 본다.

그렇게 추정해 보는 이유는 『내영지』 편찬 10년 전인 현종 6년(184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암행어사를 제수받은 서유훈

(徐有薰, 1795 ~ 1862)은 평안남도의 안주, 성천, 자산, 속천, 개천, 순천, 순안 등지를 암행하고 돌아와서 임금에게 서계(書啓)<sup>140</sup>를 바친다. 이때 오십여 명에 가까운 각 추생지역(抽生地域)<sup>141</sup>의 전·현직 수령들에 대한 상세한 동향(動向)을 보고했는데, 그중에는 당시 개천 군수 이형하와 관련한 내용도 있다.<sup>142</sup>

개천 군수(价川郡守) 이형하(李亨夏)는 야호(冶戶)<sup>143</sup>에게서 근거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자신이 스스로 마련하였고, 진휼(賑恤)<sup>144</sup> 물자가 감영에서 책정되어 내려오기 전에 먼저 창고에 보관 중이던 쌀을 방출하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세금이 견감(蠲減)<sup>145</sup>된 것에 대해 칭송하였고, 창고에서는 폐단이 거의 개혁된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기대의 유래를 『내영지』에 등재한 것도 이 보고서 속의 애민 정신이 더욱 구체화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 하나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것은 『내영지』 ‘산천조’에 소개되는 31개 항목 중 굳이 ‘이기대’ 항목을 쓰지 않아도 당시의 경상좌수영 영저와 방리의 산천을 설명하는 데

140) 암행어사가 임금에게 올리던 보고 문서. 서계 출처 : 『일성록(日省錄)』

141) 암행어사가 살필 고을을 임금이 미리 제비뽑기하듯 뽑아서 정한 지역.

142)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콘텐츠닷컴 > 평안남도 암행어사 서유훈 서계 중 > ‘개천 군수 이형하(李亨夏)’에 대한 기록만 발췌함. 심표(○)는 필자가 임의로 넣었다.

143) 철(鐵)을 제련하는 대장간 : (사)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 당송팔대가문초소식(唐宋八大家文抄蘇軾) 1책(冊) 권3.

144) 흉년에 가난하고 군색한 백성을 불쌍히 여겨 도와줌.-앞의 ‘각주 142)에서.

145) 일부가 면제되다.-앞의 ‘각주 142)에서.

하등의 문제 될 것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기대’를 추가한 것은 두 기생의 순절이 『내영지』 편찬 당시까지 200여 년 넘게 ‘의녀’로 면면히 이어져 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그는 『내영지』 서문<sup>146)</sup>에서 “보고 들은 것을 서로 참조하고 사적을 널리 수집하여 부연하여 늘이고 번거로운 것은 깎아 버리고 한 책을 만들”었다고 한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은 일대 백성들의 의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번거롭지도 않은 것이었고, 깎아 버릴 수도 없는 것’이었기에 ‘산천조’에 추가한 것으로 유추된다. 그래서 그는 그에 따른 심정을 일일이 드러내지 못함을 『내영지』 서문에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다.

“……옛사람의 말에 “사람은 옛일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진실로 옛일을 거울로 삼자면 기록한 문서가 아니고서는 어디서 취할 것인가? 옛날 영지(營地)의 남은 글이라고는 두서너 건에 지나지 않으니, 지극히 소략하다.”

이 글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은 ‘지극히 소략’한 기록으로 인하여 거울로 삼을 만한 것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그는 임진왜란의 환란과 같은 국가 위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책이라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그런 충의는 이미 중국 전한 시대의 역사가인

---

146) 『국역 내영지』의 서문.

사마천(司馬遷)이 남긴 『사기(史記)』 〈진시황본기(秦始皇本紀)〉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전사지불망(前事之不忘) 후사지사야(後事之師也)”

이를 풀이해 보면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뒷일의 스승이 된다’라는 뜻이다. 지난 일은 곧 역사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언제까지 낭설과 이설의 혼란을 정리하지 못한 채 ‘설(說)’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고언(告言)을 보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기대’이다.

### 3. 역사 현장에서 시작된 ‘이기대 유래’

이기대의 유래에 등장하는 두 기생의 이름과 나이는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한창 꽃다운 나이에 왜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몸을 던진 두 여인의 절의는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의로운 순절이었다. 그 천추의 한을 공감하는 동래부 기생들이 임진·정유의 왜란이 끝난 이태 후인 신축년(辛丑年, 1601) 봄에 용호동, 대연동 등지에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기충 앞에서 무흔제를 지냈다고 하는 구전 내용은 앞 장에서<sup>147)</sup> 언급하였다.

---

147) 앞의 '3장 5. 이기대(二妓臺)라 부르기 시작했다'의 도입부.

그리고 용호동 토착민 중 개성 왕씨 후손인 왕기세(王基世)<sup>148</sup> 선생이 1930년대 말부터 1965년도까지 현업에 종사하는 권번(券番)의 기생들을 매년 초청하여 순절한 두 기생의 원혼을 위무하는 행사를 ‘이기총’에서 열었다는 사실을 손자 왕정문<sup>149</sup>은 오롯이 기억하고 있다. 그때 그 어린 손자 왕정문은 이제 7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의 기억은 일체의 가감이 없는 ‘이기총’의 무흔제에 대한 진실 그 자체이고 누구도 쉽사리 부인할 수 없는 방계의 근거이다.

그동안 향토사 연구자 몇 분이 내 고장 부산 남구 지역에 퍼져 있는 이기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꾸준히 채록하고 발굴하였다. 그중 구전은 후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왜곡과 과장 등 기억의 오류들이 뒤엉켜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기 마련인데,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여러 문중의 족보와 그 족보상의 지명, 현존하는 장소 등을 방계의 근거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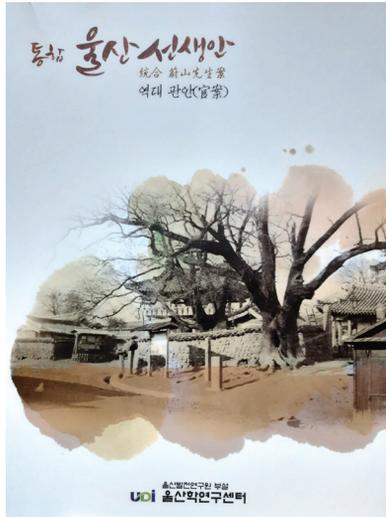
사실 우리 고장의 향토사 연구자들은 이기대의 유래가 ‘역사 현장’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고증이 부족하여 고심해 왔다. 하지만 기록 문화가 보편화 되지 않았던 400여 년 전의 일을 제대로 알아내고 증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

148) 1988년생. 개성 왕씨 7대손.

149) 개성 왕씨 9대손. 남구 향토사 『내 고장 부산 남구, 그 시간의 숨과 결을 느끼다』 공동 집필.

어려움은 문헌에서도 나타난다. 한 예로, 단순한 비교에 지나지 않겠으나, 『내영지』의 ‘선생안’에 나타난 경상좌수사 박홍 이전의 역대 좌수사는 『통합 울산 선생안』(부록 : 역대 관안)<sup>150)</sup>과 차이를 보인다.



사진◎ / 출처 : 『통합 울산 선생안 역대 관안』 표지

두 문헌의 공통점은 역대 좌수사 선생안이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명단마저도 임진왜란 258년 뒤의 『내영지』와, 400여 년 뒤의 『통합 울산 선생안』(부록 : 역대 관안)을 편찬할 때 심혈을 기울여 소략한 문헌들을 일일이 비교 대조해 가며 관련 내용을 찾아

150) 『통합 울산 선생안 역대 관안』(2015. 7,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소 편) : 이 책의 편저자(編著者)인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조사위원 박채은 ‘해제사(解題辭)’ 중에 표기돼 있다. 앞으로 이 표기를 그대로 따라서 쓰기로 한다.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천금보다 귀중한 지금의 기록을 남길 수 있었을까 싶다.

먼저 『내영지』 선생안 중 임진왜란 이전의 명단만 ‘한글(한자)’ 형식으로 옮겨보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내영지 선생안(萊營誌 先生案)

김경석(金景錫), 송 진(宋 軫), 이 정(李 汀), 방호지(方好智), 최희효(崔希孝), 이귀침(李龜忱), 오 흠(吳 滄), 이지무(李之茂), 원준량(元俊良), 한 흠(韓 洽), 어수연(魚水淵), 김한길(金漢吉), 윤 반(尹 潘), 윤선지(尹先智), 김세공(金世功), 이 엄(李 儼), 정원상(鄭元祥), 임 진(林 晉), 신 익(申 翬), 여문망(呂文望), 서 봉(徐 翁), 서 위(徐 偉), 이 정(李 挺), 서응천(徐應天), 변 협(邊 協), 이양진(李陽振), 신응기(申應基), 유몽룡(柳夢龍), 박세현(朴世賢), 김 찬(金 璨), 양사형(梁思瑩), 박 선(朴 宣), 이 경(李 璟), 윤사흠(尹師欽), 박 흥(朴 泓).

이 명단 다음의 『내영지』 원문에는 “이상문적 실어임진왜란 고부득현주(以上文籍 失於壬辰倭亂 故不得懸註)”라고 기록돼 있다. 풀이하자면, “이상은 임진왜란에 문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註)를 달지 못하였다.”라는 뜻이다. 즉, 경상좌수사 박흥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역대 좌수사 총 35명의 환적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이와 달리 『통합 울산 선생안』(부록 : 역대 관안)은 경상좌수사 박홍의 전임 좌수사는 한계남(韓繼男), 그 전임은 신할(申喆), 그 전임의 전임 좌수사는 신각(申恪)이다. 이 중 좌수사 박홍, 한계남, 신할 3명은 선조 22년(기축, 1589) 같은 해에 도입했다. 도입한 달(月)만 알 수 없거나 혹은 다르다.<sup>151)</sup> 『내영지』의 선생안과 확연히 차이가 있다. 그 원인은 경상좌수사 박홍의 도입 시기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후일의 기록자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닐까 추측해 본다.

그렇다면 경상좌수사 박홍의 도입 시기는 언제였을까? 그의 사후 비명(碑銘)에서 단서를 찾아보자면,<sup>152)</sup> 그가 선조 20년(1587) 부친상(喪)을 당하고 ‘상복을 벗자’ 경상좌도수군절도사에 임명되었고, “……임기가 차면 관례상 교체하게 되었으나 조정에서 공의 재능을 알고 특별히 1년을 더 유임하였다. 그 이듬해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왜적(倭賊)이 국력을 기울여 우리나라를 침범하자…….”(이하 생략)

이 비명을 쓴 이는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 때 주전론(主戰論)을 주장했다가 소현세자(昭顯世子)와 함께 청(淸)에 끌려가 6년 만에 풀려난 예조판서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이다. 비명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자신의 부친 무덤 앞에서 ‘시묘살이 3년을 마친’ 박홍은 선

151) 앞의 ‘각주 150)’의 책에서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편 P77 ‘경상좌수사 선생안’ 중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경상좌수사 박홍’ 이전을 기준으로 재구성해서 썼다.

152) 네이버 지식백과 | 국역 국조인물고 ‘박홍(朴泓)’(1999. 12. 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해당 부분만을 발췌, 재구성하여 썼다.

조 23년(1590) 모월(某月)에 경상좌수사로 도입했고 선조 25년(임진, 1592) 4월에 끝나 있다. 햇수만 보면 대략 3년을 재임한 셈이 된다. 이 비명을 예조판서 김상헌이 고국으로 돌아온 1642년에서 임종한 1652년 사이에 썼다면 최소 50년에서 최대 60년 뒤이다. 그리 먼 세월이 아니니 비명에 등장하는 햇수는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경상좌수사 박흥의 도입은 『내영지』에는 그의 이름뿐이고, 『통합 울산 선생안』(부록: 역대 관안)에는 기축년(己丑年) 1589년에 도입했고, 예조판서 김상헌이 쓴 비명에는 경인년(庚寅年) 1590년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기록을 남기는 사람도 다르고 기록 시기도 다르니 정확성이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문적이 사라지고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400여 년 전에 생성된 이기대의 유래를 ‘고증’의 잣대로만 보려 하면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감 나는 이유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기대의 유래가 역사 전면에 등장한 것은 임진왜란 258년 뒤인 1850년 『내영지』가 편찬된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오로지 지역민들의 구전에 의존해서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이 전해져 왔다. 그마저도 『내영지』 편찬 80년쯤 뒤인 일제 강점기에 한 일본인 역사학자의 그릇된 역사 인식으로 인하여 조선의 고서 등 1868종의 문화재가 질곡의 어둠에 묻혀버렸으니, 자연 이기대의 유래도 그 어둠 속에 침잠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03년 9월부터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에 등록된 한국의 문화재를 2004년 10월까지 총 4차에 걸쳐 조사할 때 이렇게 많은 문화재가 쏟아질 줄 어찌 짐작이나 했을까? 아니 그보다는 한국 측 관계자들이 느꼈을 그 어이없음과 황당함, 조상님들이 겪어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굴레, 그런 것들이 뒤영켜 저 깊은 곳에서 스물거리고 올라오는 질곡의 역사를 마주한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지 감히 짐작조차 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부산시는 『내영지』를 일본 천리대학에서 소위 ‘빌려와서’ 2001년 4월 『국역 내영지』를 발행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긴 암흑 속에 잠자고 있던 이기대의 유래와 그 근거가 되는 ‘이기총’의 유무를 실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로부터 10년 뒤의 일이었으니, 비로소 ‘새로 쓰는 이기대’의 전환점은 2011년부터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니 어찌랴! 질곡의 역사를 탓하랴, 낭설과 이설을 탓하랴, 후세인들의 무관심을 탓하랴.

그러나 이제는 질곡의 역사도, 낭설과 이설의 혼란도, 후세인들의 무관심도 마땅히 걷어내고 지워내고 새로 써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기대의 유래를 고증하는 『내영지』와, 그 인과관계를 제공하는 구전과, 허구적 요소를 줄여주는 방계의 근거들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곳곳에 현존하고 있는 방계의 자료도 많다. 이 모두를 열거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 ① 동산말의 석굴(각시당)
- ② 왜군의 승전 자축연이 벌어졌던 너른바위
- ③ 너른바위 앞바다에 자생하는 외톨개모자반
- ④ 석벽에 음각으로 새겨진 ‘二妓臺’ 세 글자
- ⑤ 25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의 ‘의용단비명’을 쓴 전 승지 이형하의 자취
- ⑥ 『내영지』 ‘산천조’의 “이기대 좌영남 시오리 상유 이기충운” 기사
- ⑦ 조성 양식과 규모가 비슷한 장자산 기슭의 큰 무덤 ‘두 기(墓)’
- ⑧ 이기충 묘역에 대한 성지(聖地) 인식의 족보 기록 ‘의부지’
- ⑨ 족보상의 묘소 지칭 ‘이부지’, ‘이부등’ 등의 지명들
- ⑩ 임진왜란 직후 1601년 동래부 기생들의 이기충 ‘무혼제’에 대한 구전
- ⑪ 이기충 ‘무혼제’를 1930년대 말부터 1965년까지 매년 개최했던 할아버지에 대한 손자의 기억과 증언
- ⑫ 용호동의 빠른 도시화 속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두 돌아가신 뒤 이기충을 별초하고 돌보던 손길이 끊어졌다는 구전

이상으로 정리된 자료 외에도 확인 가능한 자료가 더 있는 반면에 개연성·신빙성·설득력이 부족한 자료는 모두 배제하였다. 앞으로 두 기생의 출생과 성장배경, 용호마을에서 살게 된 경위 등이 연구 과제로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자료만으로도 이기대의 유래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는 곧 이기대의 전설은 그 뿌리가 ‘이기충(二妓塚)’에 있고, 그 이기충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 현장의 산물이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닫는 말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마치며





##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마치며

그동안 내 고장 부산 남구의 향토사를 연구해온 분들이 이기대의 유래에 대하여 누군가 물어오면 어김없이 두 기생의 순절은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기총의 존재는 그 역사 현장의 증거라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그 끝은 ‘잘 짜인 옛이야기 한 편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얼른 생각할 때 ‘이기대’는 무한한 문화 콘텐츠를 품고 있다고 부러워서 그러나 보다 했는데, 전혀 뜻밖에 “이기대의 전설이 왠지 논개와 닮았군요.” 하는 말에 그만 눈만 껌벅일 뿐이다.

왜 그런 반응과 예상 밖의 말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은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을 굳게 세워서 역사의 교훈에 접근하는 후세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꾸짖는 경고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성싶다. 이와 같은 경고는 ‘사감(史鑑)’이라는 말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사(史)는 ‘역사’요 감(鑑)은 ‘거울’이다. 거울을 보면 지난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다. 이는 만고의 진리이다.

그동안 내 고장 향토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온 몇 분의 연구자들이 일체 외부의 도움 없이 노력하여 이기충의 존재를 2011년 다시 세상에 알려 ‘새로 쓰는 이기대’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났다. 천혜의 해안 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의 새로운 역사 쓰기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종전보다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을 때 부산 남구와 부산시가 자랑하는 애국충절의 역사 현장으로서 화수분 같은 문화·예술·관광 등의 콘텐츠자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 글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고장 부산 남구의 향토사를 다루는데 앞장서 오시고, 이기대의 유래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계신 왕정문, 공기화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이번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쓰는데 필요한 많은 사진도 제공해 주시고 조언도 아끼지 않으신 두 분 덕분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이기대의 유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새로운 내용뿐만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텅그러니 비어있던 퍼즐 한 조각을 비로소 끼어맞춘 듯한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난 2001년 이미 책으로 발간·보급된 지 20년이나 지난 『내영지』 국역본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부산시 시사편찬실의 『국역 내영지』 보관용 PDF 파일을 제공받아 이기대 유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그동안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던 내용보다 더 알차고 풍부하게 엮어 ‘두 기생의 순절 이야기’를 쓸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오래된 『국역 내영지』 보관용 파일을 찾아서 보

내주시 부산시 문화유산과 이연심 시사편찬상임위원회께 감사드립니다.

이기대 유래를 『내영지』에 남긴 승지 이형하의 자취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소재 수영사적공원(水營史蹟公園)에 남아 있다. 25의용단 ‘의용제인비’ 후면의 ‘의용단비명’이 그것인데 글자의 마모가 심해서 도저히 읽을 수 없었다. 그래서 수영구청 문화관광과에 문의하여 원문과 국역본을 받을 수 있었고, 이 자료를 통해서 이기대 석벽에 새겨진 ‘二妓臺’ 세 글자의 음각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수영구청 문화관광과 관계자 및 자료를 보내주시는 송민영 주무관께 감사드립니다.

조선 초기 경상좌도 육군과 수군의 본영인 병마절도사영과 수군절도사영의 군사 요충지였던 울산의 역대 병마도절제사와 수군도절제사 등의 ‘선생안(先生案)’이 2015년 『통합 울산 선생안 역대 관안』 제명으로 발간·보급되었다. 이 책을 통해 경상좌수사의 명칭 변화를 비롯하여 이기대 유래와 관련한 임진왜란 당시의 경상좌수사 ‘선생안’을 『내영지』와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이 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도움 주신 울산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낭설과 이설이 점철된 채 오늘에 이른 이기대의 유래와 관련된 자료를 얻으려고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콘

텐츠진흥원 등의 홈페이지를 찾기도 했고, 부산시립박물관과 수영사적공원 방문, 인터넷 웹서핑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 하지만 내 고장의 향토사를 다루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정성을 조금 보탠 것에 불과하니 그간의 노고라 해봤자 깃털처럼 가벼울 뿐이다.

끝으로, <부산남구문화원>과 <이기대보존회>에서 ‘새로 쓰는 이기대’의 첫걸음을 뗐다. 이 행보는 오늘의 우리가 훗날의 뒷사람에게 남기는 발자국이다. 모름지기 400여 년 이상 묻혀 있던 두 기생의 의로운 순절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 애국충절의 역사 현장을 울곧게 전하여야 하는 사명감을 그 위에 얹어서 깊은 울림이 있는 발자국을 남겨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옛사람의 시 ‘야설(野雪)’<sup>153)</sup> 한 수를 끝으로 지금까지의 아귀 글을 모두 맺는다.

눈 덮인 들판을 지나갈 적에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훗날 뒷사람에게 이정표가 되리니.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답설야중거 불수호난행 금일야행적 수작후인정

-끝-

---

153) 조선 후기의 문인 이양연(李亮淵, 1771~1853)의 시 -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 ;  
‘서울대 규장각 소장 필사본’에 수록



이기대 설경(雪景)

사진@/제공 왕정문(향토사연구가 · 용호만 자연생태환경지킴이)

두 기생의 순절<sup>季節</sup> 이야기

# 이기대

인쇄일 | 2021년 10월 25일

발행일 | 2021년 10월 30일

지은이 | 곽태욱

발행처 |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회장 성재영  
(48543)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 부산문화재단 1층  
T. 051-554-0159 F. 051-554-0169

기획처 | 부산남구문화원 원장 김철  
(48516)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566-2  
T. 051-624-1333 F. 051-624-1348

제작자문 | 이기대보존회

제작총괄 | 도서출판 두손킴 (등록번호 : 제329-1997-1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35 삼성빌딩 301호  
T. 051-805-8002 F. 051-805-8045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비매품

ISBN 979-11-91263-29-9 03810

이 책은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